



2050세대 가상자산 투자 트렌드 보고서

-가상자산 투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2025.06

Contents

I. 조사 개요 (배경, 목적, 설계)

II. 가상자산 투자 현황 및 특징

III. 가상자산 거래 기관(거래소 및 연계 은행) 이용 행태 분석

IV. 향후 가상자산 투자 계획

조사 개요

배경, 목적 및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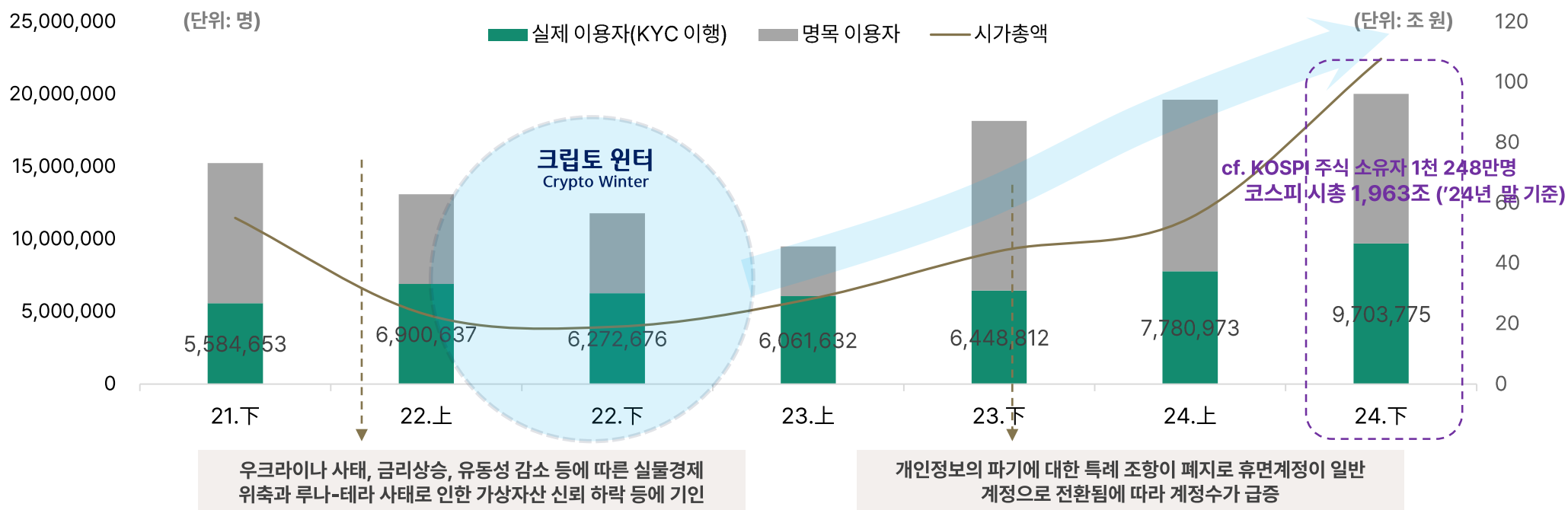


가상자산 거래자 약 1천 만 명,
23년 이후 꾸준히 증가

-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23년 시장 침체기(크립토 윈터)를 벗어나 가격상승 및 시장규모 확대 추세
-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주식시장의 6% 수준
- 국민의 약 20%(970만명)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를 보유(주식투자자 수의 77%)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현황 * 중복포함

※ 국내최초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2013년 설립) 누적 회원수: 2.2만명(2013년 말) → 136만(2023년)



시가총액	글로벌	2,660조 원	1,117조 원 (▼58%)	1,010조 원 (▼10%)	1,540조 원 (▲53%)	2,143조 원 (▲39%)	3,125조 원 (▲46%)	4,989조 (▲60%)
	국내	55조	23조 원 (▼71%)	19조 원 (▼16%)	28조 원(▲46%)	44조 원(▲53%)	55조 원(▲27%)	108조(▲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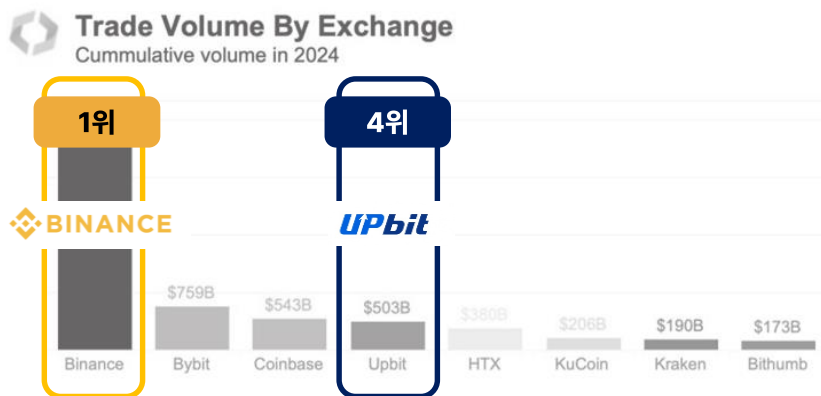
자료 :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금융위원회)
자료: KOSIS 국가통계 포털
자료: 2024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한국예탁결제원)

내국인 전용 거래플랫폼 '업비트' 거래량 세계 4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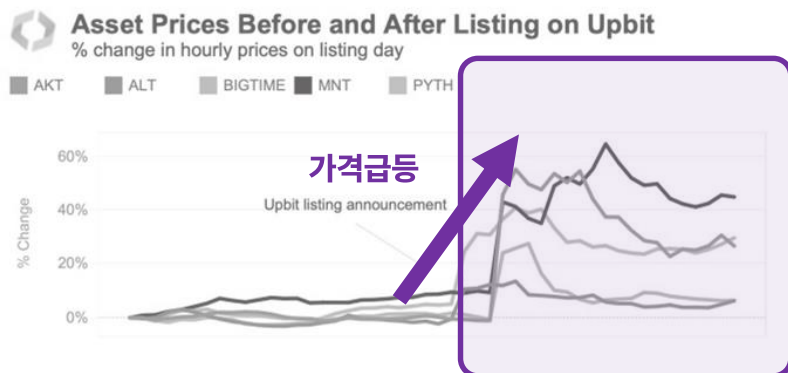
-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사용자가 한국 거주자로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평균 거래량 기준 글로벌 거래소 순위 5위권 내 유지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프로젝트가 상장되면 가격이 급등하는 **상장 펌핑 현상**을 보이기도함

■ 한국, 가상자산 개인투자자 열풍

■ 2024년 가상자산 거래소 순위(누적 거래량 기준)



■ 업비트 상장 발표 후 가상자산 가격 '펌핑'



- 한국의 가상자산 투자자(개인)에 대한 평가 -

State of the Korean Crypto Market.

“한국의 개인 투자자 열풍은 빠른 인터넷 속도, 기술의 광범위한 채택, 위험을 즐기는 투자 문화, 트렌드가 빠르게 확산되는 단일 민족 사회와 같은 문화적 요인에 기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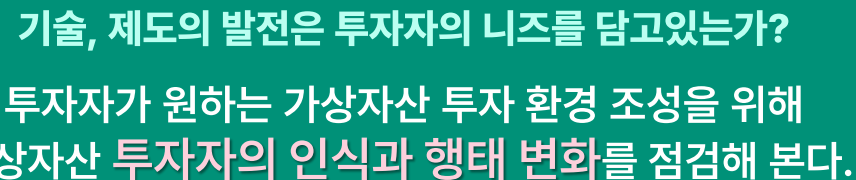
Presto x Kaiko

“업비트는 평균 거래량 기준으로 항상 상위 다섯 거래소에 포함
한국 거래소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HTX와 같은 글로벌 거래소와 달리 사용자가 한국 거주자로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놀라운 일”

“2017년 부터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 한국의 거래소는 프로젝트들이 상장되기를 원하는 중요한 플랫폼”

“상장펌핑, 한국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가격은 발표와 함께 즉시 급등”

■ 2024년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이벤트



■ 주요 조사 내용

- 가상자산 투자자 특징 및 투자 방식 등을 점검해
가상자산 투자의 인식·트렌드 변화를 확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특징과 은행 연계 거래에 따른
거래 영향력을 확인

- 향후 가상자산 투자 의향 및 이유, 활성화 요건 등을 점검해
소비자 주도의 시장 변화 예측

온라인 설문

- 2050대 금융소비자 700명을 설문해 객관적 시장상황 점검
- 투자자 300명 별도 설문해 가상자산 투자 특징, 트렌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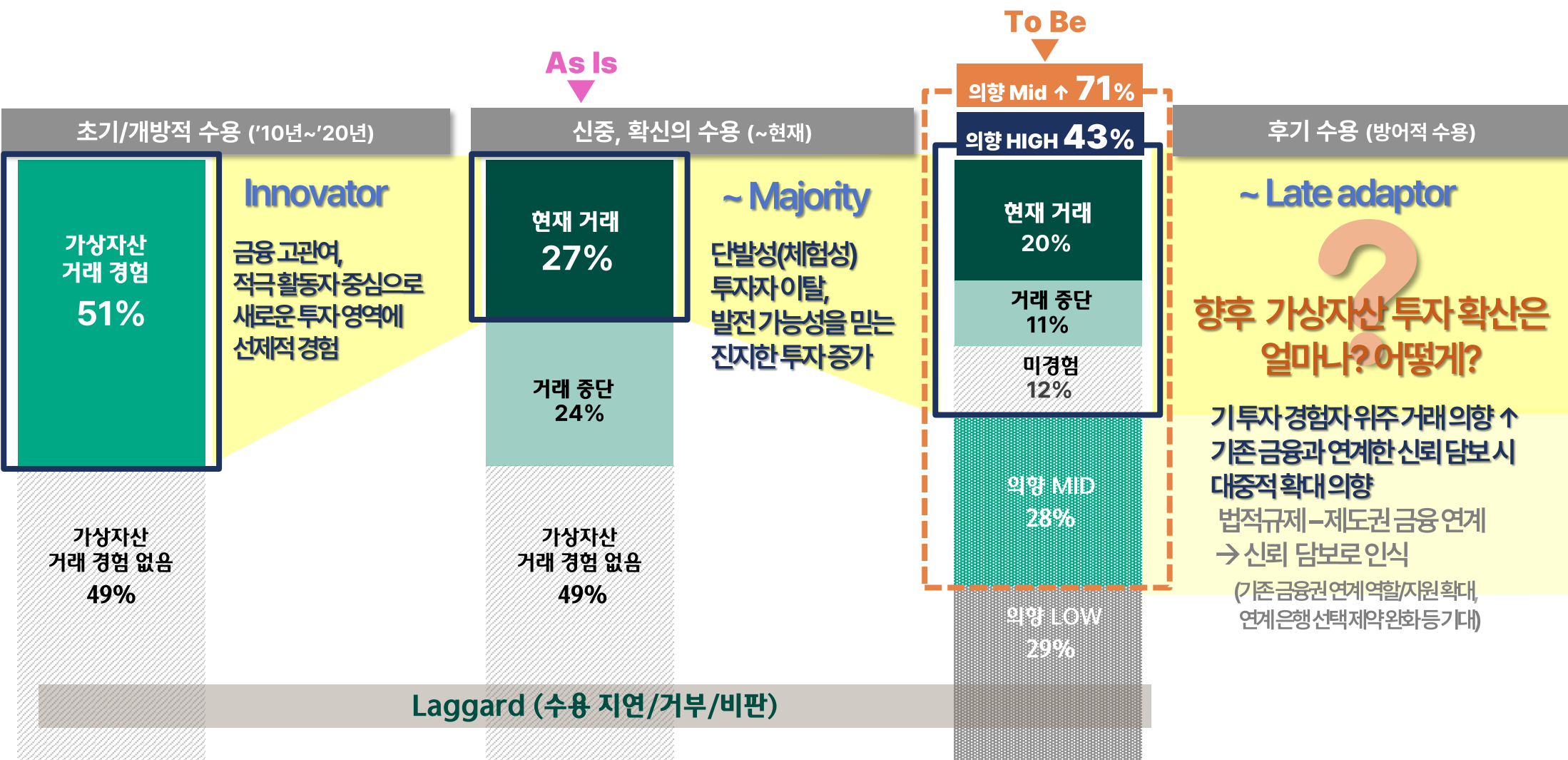
설계

조사 방법	• 정량조사(온라인 조사)
조사 대상	• 총 1,000명 Random(2050대 성인 남녀 700명) + Booster(가상자산 투자자 300명)
표본 할당	• 샘플 추출 방법 : 성, 연령 비를 고려한 Quota 샘플링 • Random 응답자 수 : 700명 기준 (표본오차±3.7%p, 95%신뢰수준)
조사 지역	• 서울 및 수도권, 광역시 거주자
조사 기간	• 2025.4

응답자 특성

		사례수	구성비 (%)
전체		(700)	100
성별	남성	(359)	51
	여성	(341)	49
연령	20대	(141)	20
	30대	(161)	23
	40대	(188)	27
	50대	(210)	30
가상자산 보유여부	보유	(187)	27
	미보유	(513)	73
금융 자산	1억 원 미만	(551)	78
	1억 원 이상	(149)	22
지역	서울	(213)	30
	경기/인천	(235)	34
	광역시	(138)	20
	기타	(114)	16

-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 대중적 수용을 위한 고도화를 준비할 때!



- 가상자산의 발전을 기대하며 투자 포트폴리오에 해당 영역을 확대하는 진지한 투자자 증가
- 전통 금융사와 연계를 통한 거래 편의성 개선, 신뢰성 담보 기대

Innovator

초기/개방적 수용 ('10년~'20년)

초기 수용자 거래 특징

- Who** - 적극/공격적 투자성향, 3040대, 남성, 화이트칼라 다수 금융상품 거래자
- Why** - 투자시작: 유행따라, 호기심때문
- What** - 코인만 보유 94%(비트코인 위주) 10명 중 4명은 100만 원↓으로 시작
- How** - 수익 변동성 커 투자 중단-재개 반복
- 수익률에 따라 비정기적 매매, 단기 보유 목적 다수

~ Majority

신중, 확신의 수용 (~현재)

작아도 진중히, 기투자자 거래 심화

- Who** - 50만원 미만 소액 투자 늘며 20대 유입, 50대 투자 확대, 여성 증가
- Why** - 유행/호기심 때문 ↓ 새로운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
- What** - 보유 코인 종류 다양, 코인 외 가상자산 보유자 증가
- How** - 정기적 매매, 중기 투자 증가
- 코인 수익은 다시 코인에 재투자

~ Late adaptor

후기 수용 (방어적 수용) 법적규제, 기존금융권연계를 통한 신뢰 제고 기대

향후 거래 의향

- Who** - 개인의 투자 성향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므로 투자 경험자 위주 거래 확대 의향 높음
- Why** - 장기적/미래 통화로의 가치, 기술혁신 기대로 포트폴리오 확대 계획
- What** - 기 투자 경험자는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 확대
- How** - 투자자 5명 중 1명은 자녀를 위해 매수
- 50대 투자자는 장기 보유,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 높은 편

Laggard (수용 지연/거부/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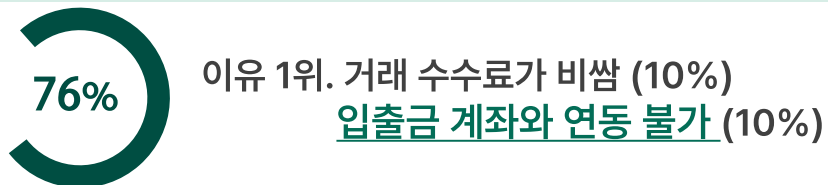
수용 거부자의 우려

- 수익률에는 관심 있으나 시장 변동성뿐 아니라 거래소 리스크(파산), 사기 등 새로운 투자영역에 대한 불확신, 심리적 Barrier 큰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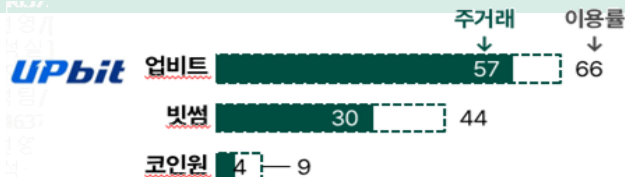
- 가상자산 거래 시 '연계 은행 선택 제약'의 불편함은 애로사항 1위, 향후 투자 확대 의향에도 부정적 영향
- 가상자산 투자 확대 시 저축상품 예치액 우선 활용 의향(투자 상품간 조정이 아니라 우선 저축상품 → 가상투자로 전환 의향), 은행은 가상자산 기반 금융상품 다양화, 투자 통합의 관리 고도화, 가상자산 업계와 협업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 필요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거래소 이용

가상자산 거래소 첫 이용 시 불편함을 느꼈다



1인 1.5개 거래소 이용, 업비트(K뱅크) 주도



거래소 선택은 '주변 추천', '연계 은행' 영향이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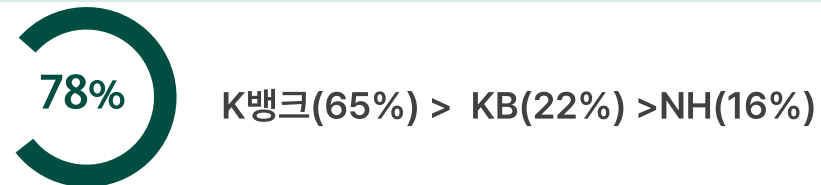
- 거래소 자체 특징(업력, UX, 거래 코인 종류)보다 주변인 추천(26%), 연계 거래은행(11%), 이벤트(10%) 중시

향후 거래소를 통한 추가 금융거래 의향 43%

- 계좌이체, 주식 연계 거래 시 편의성 기대, 특히 20대 의향 높음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연계 은행 이용

코인 거래 위해 신규 은행에서 계좌 개설



신규 후 거래 확장: 16% + 향후 거래 확장 의향: 57%

- 신규 후 거래 확장 가능성 존재하나 실제 추가 action 소극적
- 거래 확장 시, 입출금 평잔 100만 원 이상 유지 60%
(1천만 원 이상 18%)

'거래소 연계 은행 선택 제약'은 투자 시작 → 확대에도 영향

- 거래소 연계 은행 선택 제약은 투자 시작의 애로사항 1위, 투자 확대 의향에도 부정적 영향
- 제약 완화 시 10명 중 7명은 주거래 은행 선택(혜택보다 편의성 우선)

가상자산 투자 확대 시 저축성 상품 조정 의향

- 가상자산 거래 확대 시 예적금 등 현금성 자산을 우선 활용

II 가상자산 투자 현황 및 특징

1. 가상자산 투자자 특징
2. 가상자산 투자의 시작
3. 가상자산 투자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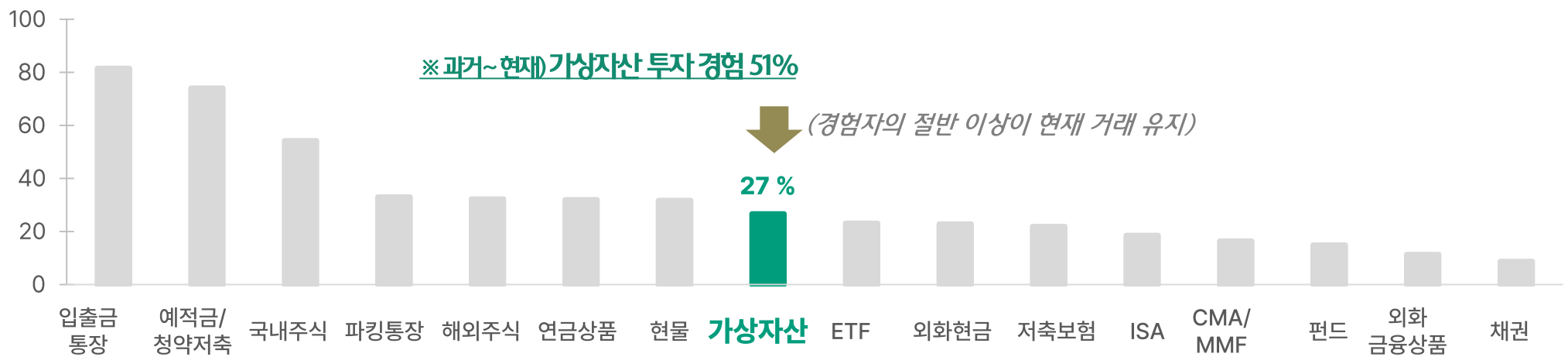


가상자산 투자자는
가상자산이 총 금융자산의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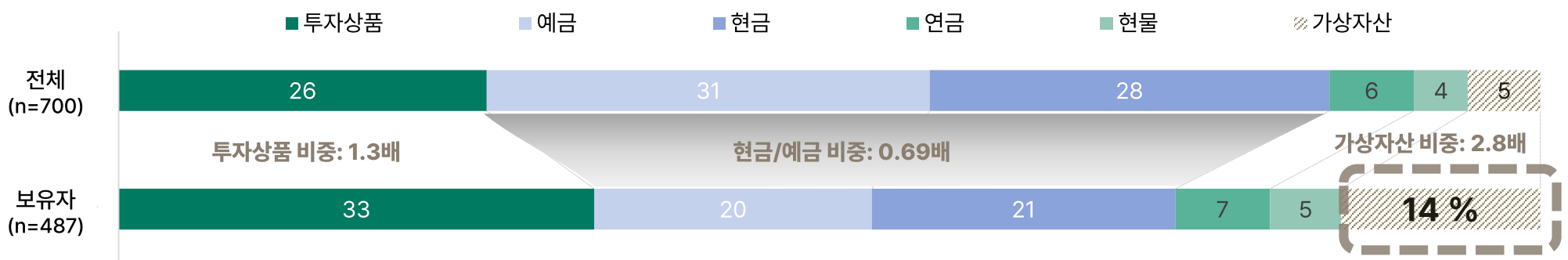
- 2025년 4월 설문 기준, 2050대 절반이 가상자산 투자를 경험했고 **27%**가 현재까지 가상자산 보유
- 가상자산 투자자는 전체 평균 대비 현금/예금액 비중이 **0.7배** 낮고 가상자산 투자액은 총 금융자산의 약 14%를 차지해 가상자산 포함 투자액이 총 금융자산의 절반 가까이 차지(전체 평균 대비 1.5배)

2050대의 금융상품별 보유율

(n=700, 응답자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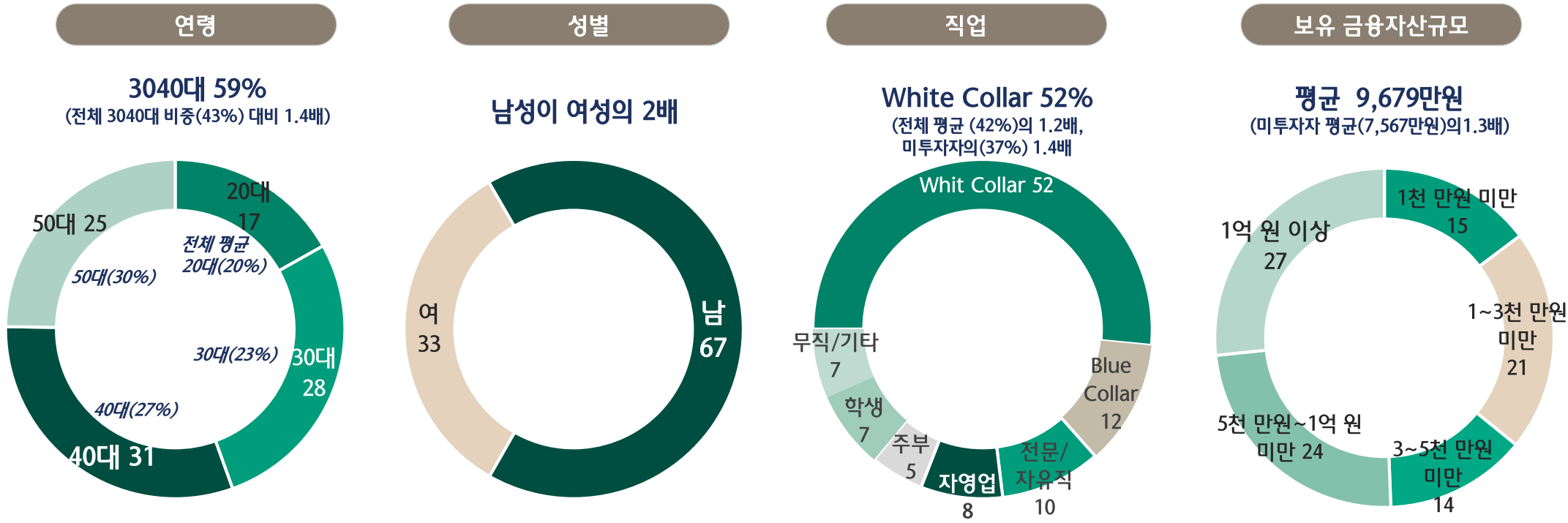


■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 총 금융자산의 **14%**(약1,300만 원)가 가상자산



3040대, 남성,
금융자산 1억 원 내외, 직장인

- 투자자 중 40대 비중 높고, 30대의 참여율 ↑, 50대도 관심 큰 편
- 남성투자자가 여성투자자의 2배, White Collar가 과반으로 전체 평균을 상회
- 약 1억 원의 금융자산 보유해 전체 평균보다 자산 규모 많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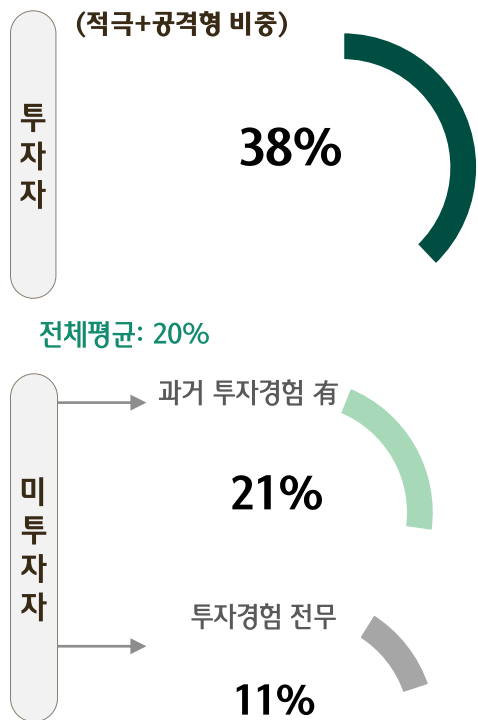


(n=487, 가상자산 투자자, 단위: %)

가상자산 투자 선택은
적극+공격적 투자 성향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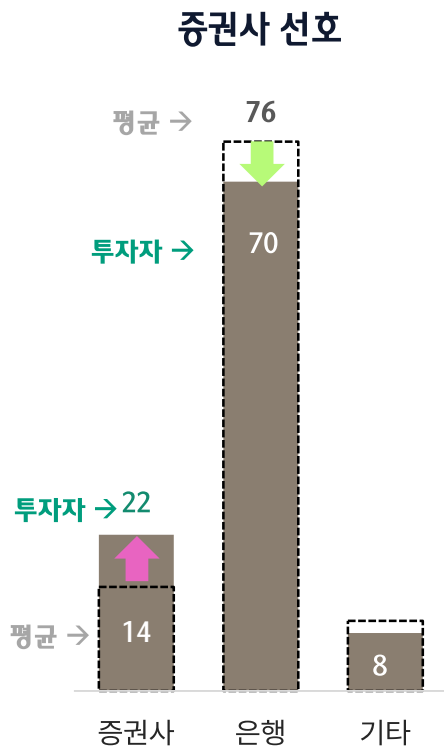
- 현재 가상자산 투자자의 약 40%는 적극+공격형 투자성향을 보이며, 전체평균보다 2배 많은 수준
: 한번이라도 가상자산 투자를 시도경험해본 경우 경험이 전무한 투자자보다 공격적 투자 성향 높음
- 가상자산 투자자는 은행보다 증권사에 최고금액을 예치한 투자자 비중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현금/예금보다 투자상품(가상자산 제외)에 자산을 예치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음

가상자산 투자 경험별 투자 성향
(적극+공격형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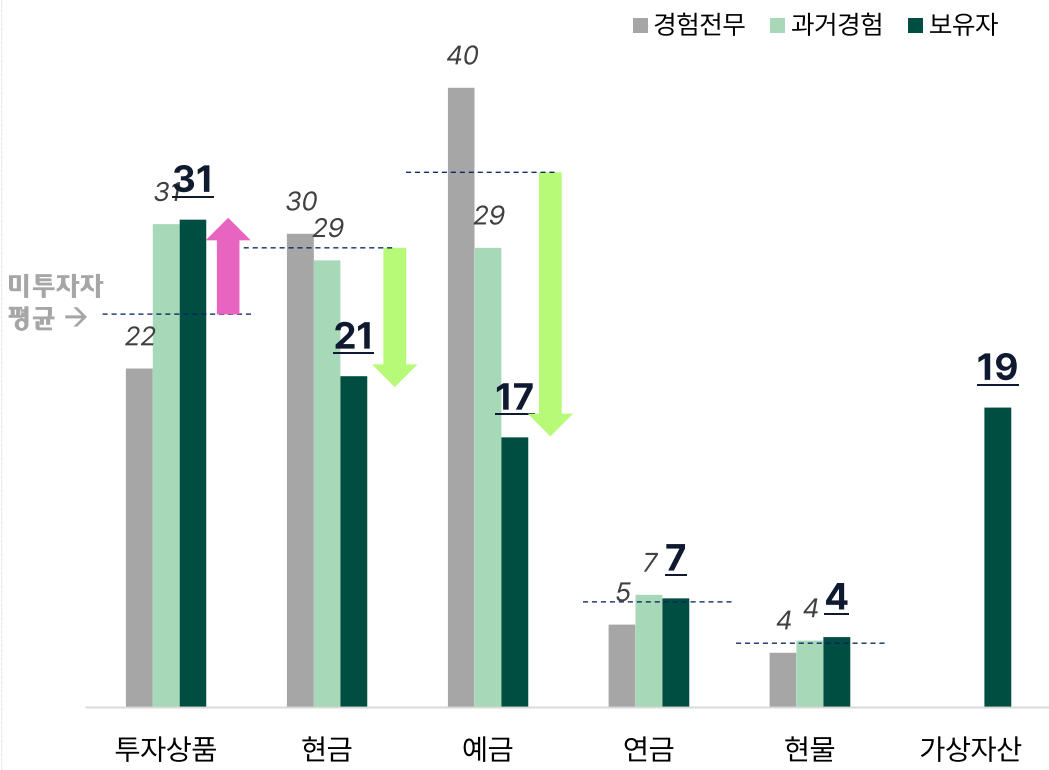


(n=700, 전체, 단위: %)

최대 자산 예치 금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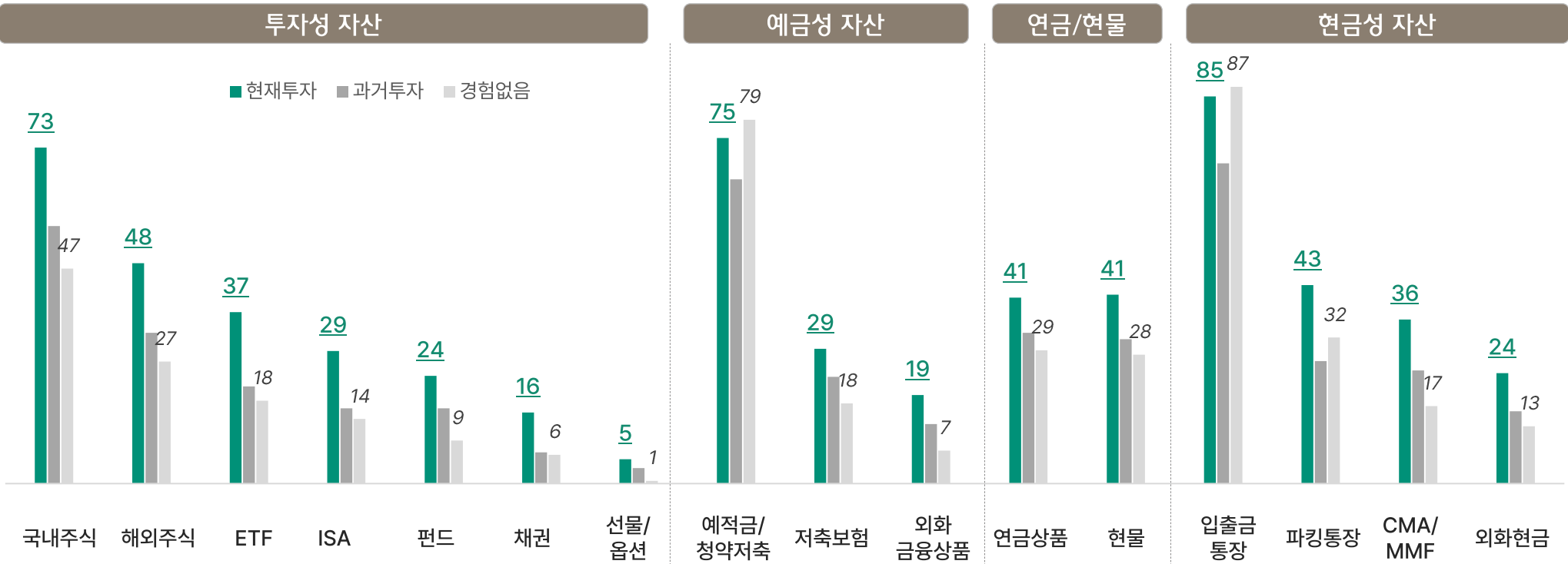


금융상품군 자산 예치 비중



가상자산 투자자는 적극적
금융거래, 특히 직접투자 활발

- 가상자산 투자자는 미투자자 대비 더 많은 금융상품을 거래(7.3개)하며 금융거래에 적극적
- 국내주식은 투자자 대다수가 보유(73%)하고 ETF, ISA 도 전체 평균의 1.5배 이상 더 많이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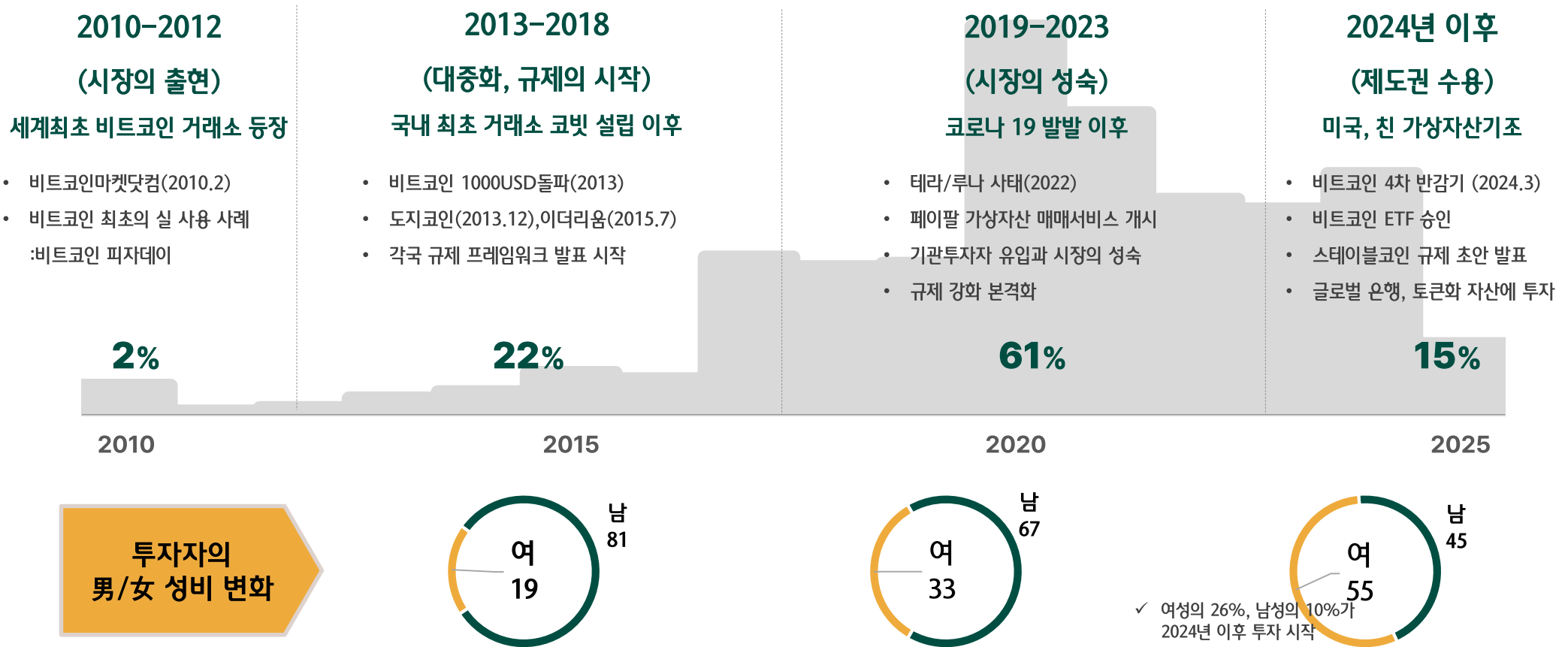
(n=700, 전체, 단위: %)

2020년 투자자 급증,
초기 남성 위주였으나
최근 여성 참여 활발

- 가상자산 투자자의 **60% 이상**이 비트코인가격이 폭등했던 **2020년**을 기점으로 대거 유입
:팬데믹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유동성을 늘리면서 인플레이션 헷지 수단으로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에 투자
- 투자 급증기를 넘어가며 **여성투자자 비중 증가 추세** (24년 이후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한 여성 26%)

첫 투자 시작 시점

(n=487, 가상자산투자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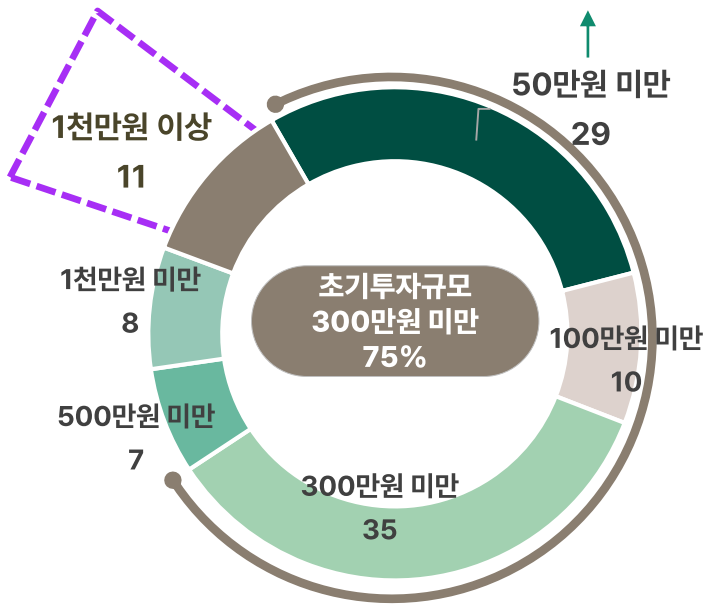


* 분석시 편의상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 전후를 과거로, -2024년 이후를 현재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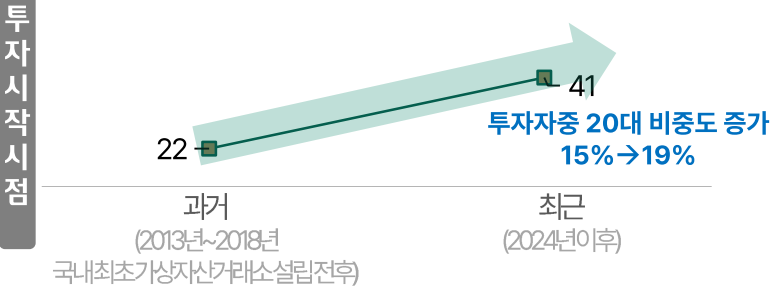
투자자 10명 중 8명이 300만 원 미만으로 시작, 이후 지속 증액

- 투자자의 11%만이 투자금 1,000만 원 이상으로 시작했으나 현재 누적 투자액이 1,000만 원 이상은 42%로 4배 증가, 투자자 대부분이 투자 시작 후 투자자금을 증액해 온 것
- 투자자 유입이 촉발되면서 과거 대비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경향도 늘었는데, 소액 투자는 특히 젊은 층 유입 확대에 기여

■ 투자시작규모 • 20대(44%)>30대(32%)>40대(28%)>50대(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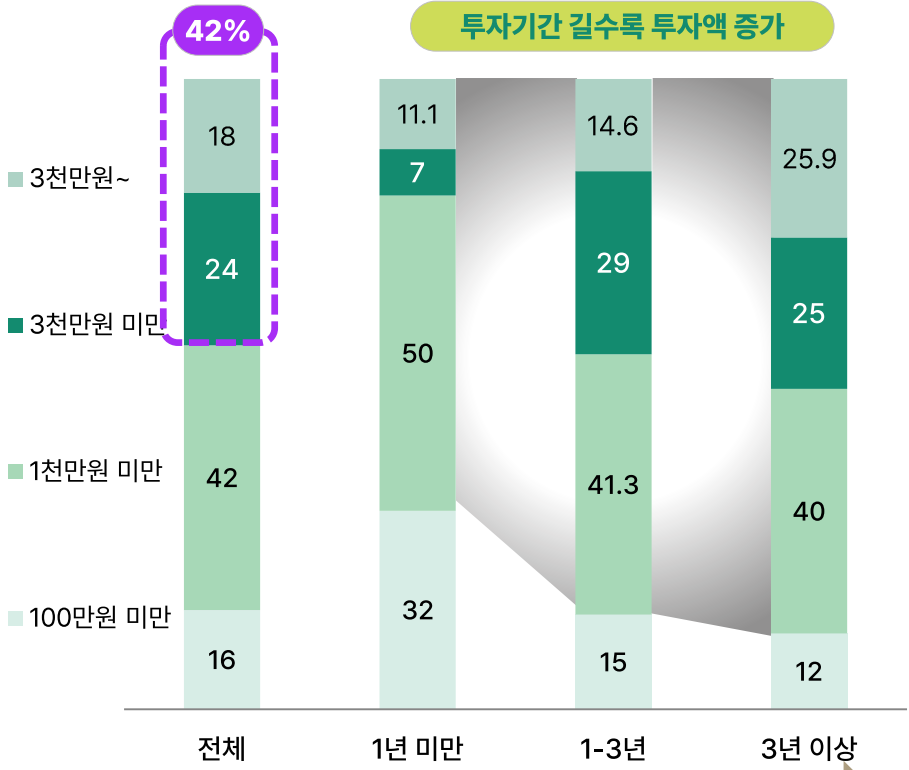


※ 소액(50만원 미만) 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비중



누적 투자금

누적 투자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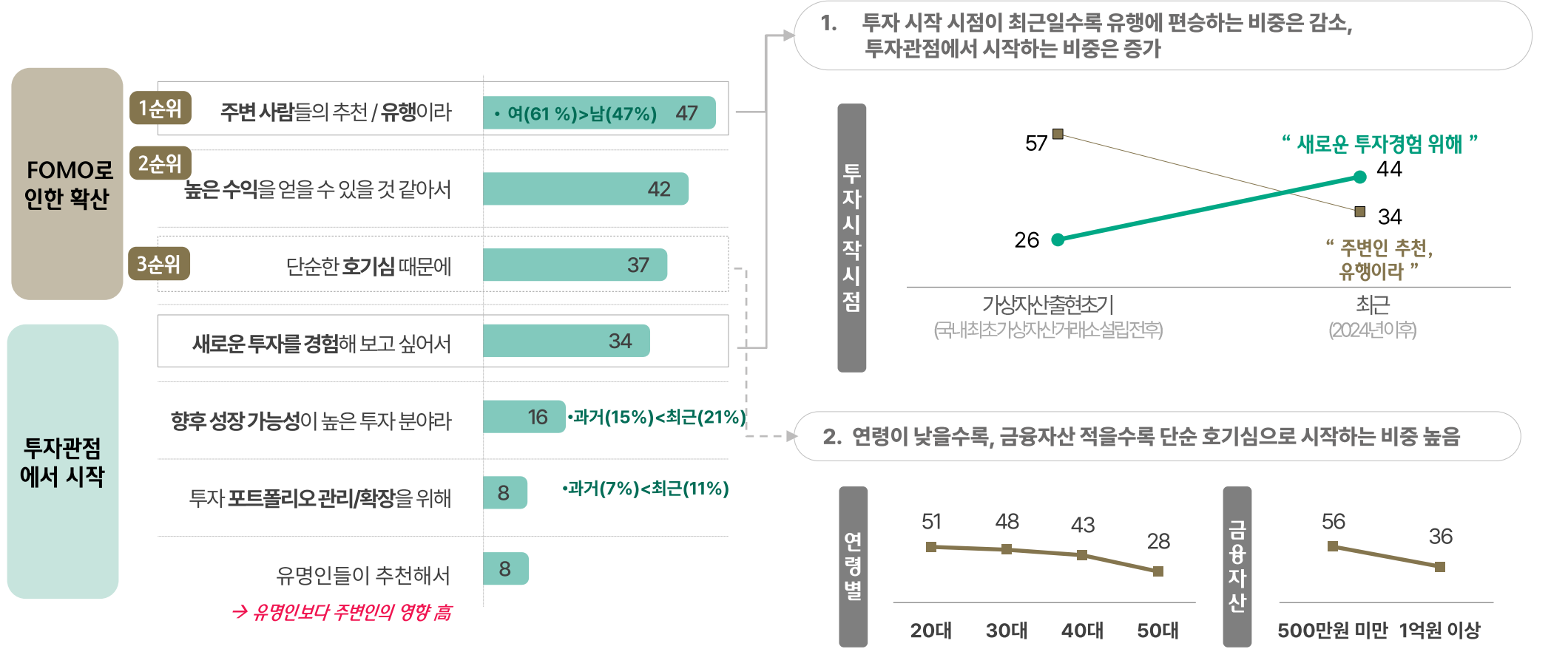
(n=487, 가상자산보유자, 단위: %)

유행, 수익률 기대에서
→ 새로운 투자 관점으로 접근

- Top3: 유행(49%), 높은 수익률(42%), 단순 호기심(41%)으로 FOMO*가 지배적
- 최근 투자를 시작한 경우 유행 따라 시작했다는 비중이 감소하고 새로운 투자 영역으로 가능성을 보고 접근하는 경향,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투자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비중 큰 편

*FOMO(Fear Of missing out) : 놓치거나 제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상자산 투자 시작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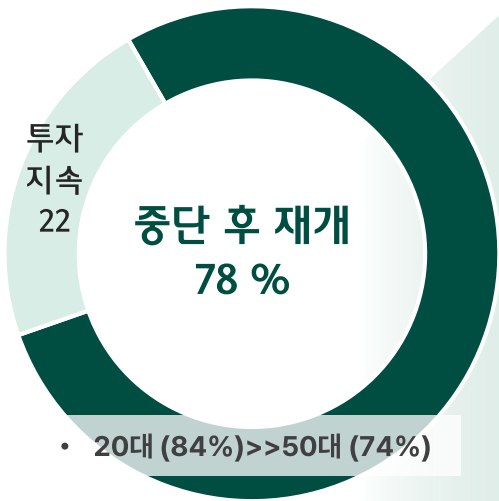


(n=633, 가상자산 투자 경험자, 단위: %)

투자자 10명 중 8명은 시황에 따라
투자 중단-재개 반복
(상황에 따라 투자 현황 변화 가능성)

- 수익의 변동성이 큰 코인 투자 시, 투자 시작 후 꾸준한 유지보다 중단-재개를 반복하는 것이 보편적
- 78%는 변동성, 손실 등을 이유로 투자를 중단한 경험, 시황이 개선되거나, 금전적/시간적 여유가 회복되면 투자를 재개
- 젊은층은 변동성을 못참거나 일상 방해로 중단, 금전적 여유와 관련 지식 보강 후 투자 재개하는 경향 큰 편

투자 지속력



(n=633, 가상자산 투자 경험자, 단위: %)

※ 투자 중단 사유		20대	30대	40대	50대
변동성이 너무커서	37%	40	39	37	35
투자 손실	34%	27	34	36	38
시황이 좋지 않아서	33%	21	34	35	39
투자에 집중할 여유가 없어서	14%	22	10	15	12
일상생활에 방해돼서	14%	18	17	15	8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11%	10	14	10	9
다른상품에 투자하려고	9%	10	6	11	9
주변에서 그만 뒤서	5%	4	5	4	7

(n=386,투자 중단 경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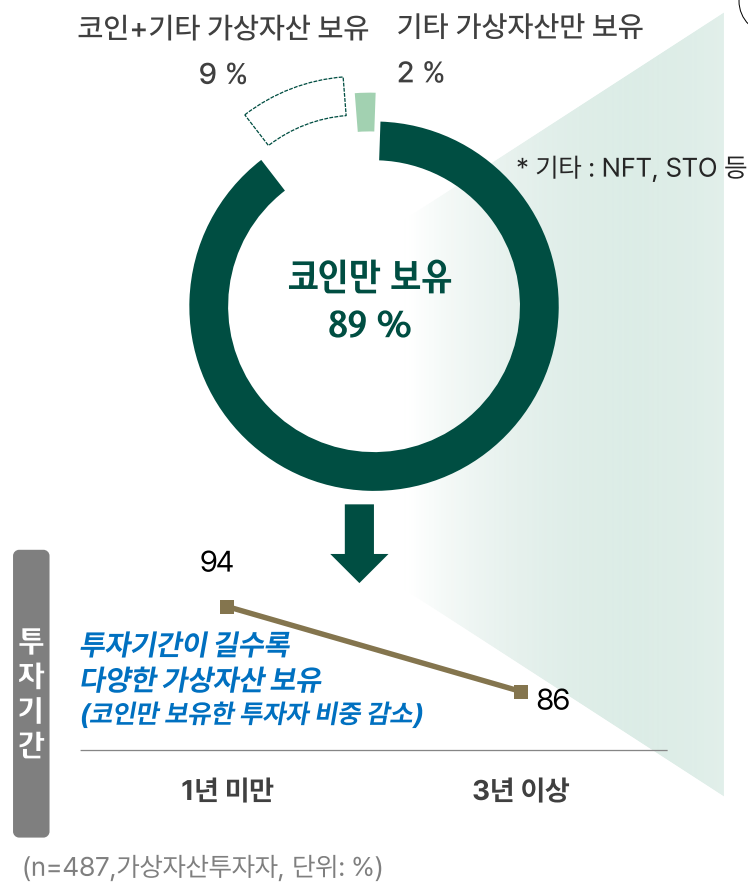
※ 투자 재개 사유		20대	30대	40대	50대
시황 개선	34%	41	35	30	33
금전적 여유가 생겨서	28%	37	27	26	24
주변에서 많이 거래	17%	10	15	20	21
투자에 집중할 여유가 생겨서	15%	14	13	16	19
활용처 확대	12%	8	9	10	19
선진국에서 인정/발전	11%	10	12	8	14
충분한 지식이 쌓여서	9%	13	11	7	7

(n=386,투자 중단 경험자)

가상자산 투자자
10명 중 9명은 '코인'만 보유
(아직까지 가상자산 = 코인)

- 가상자산 투자자의 89%가 only 코인만 보유해 가상자산=코인이라 봐도 무방, 코인 외 가상자산 인지/관심 저조한 편이나 투자 기간 길수록 보유 가상자산 종류도 다양
- 비트코인, 알트코인은 투자 후 지속 유지되나 밌코인은 상대적으로 유지 저조, 일시적 유행/관심 경향

보유 가상자산



보유중인 가상자산 종류

	보유 경험	유지율	현재 보유
코인			
비트코인	81	82%	66
알트코인 ex. 이더리움, 에이다, 리플, 솔라나	69	85%	59
밌코인 ex. 도지코인	37	56%	21
스테이블코인 ex. 테더, 써클	17	47%	8
NFT	5	53%	8
기타			
토큰증권(STO)	5	70%	3
이용경험 플랫폼			
musicUw (70%) 소우 (39%) Fingo (35%) S O T W O (30%)			
음원 부동산 음원 미술품			

투자자는 평균 2종의 코인 보유,
10명 중 6명이 비트코인 투자

- 1인 평균 2종류의 코인 보유, 투자기간과 규모에 비례해 보유 코인 종류도 다양화
- 과반은 비트코인을 보유하지만 비트코인 없이 알트코인 등을 보유한 비율도 36%, 주 투자 코인(최대 투자금액) 역시 단일 종류로 **비트코인(49%)**이 압도적이거나 다양한 **알트코인 종류(47%)**에도 관심 : 투자 기간이 길수록 스테이블코인에 주력 투자하는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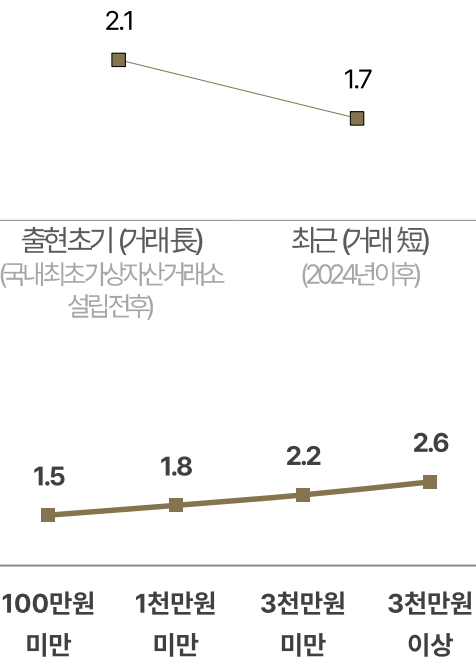
보유 코인 종류

보유코인종류 평균



투자 시작 시점

투자 규모 별



(n=487, 가상자산투자자, 단위: %)

투자기간이 길수록
비트코인 외
스테이블코인에도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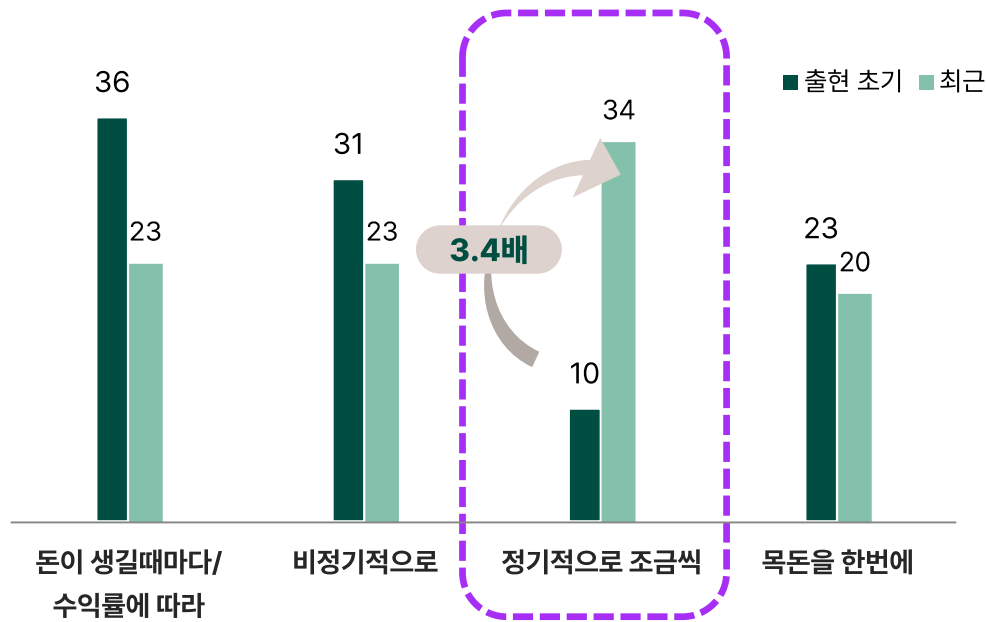
구분		보유율	주 투자율 (최대투자금액)		
			전체	투자 지속기간*	
비트코인	비트코인(BTC)	64	49	40	51
알트코인	리플(XRP)	34	16	47%	45
	이더리움(ETH)	32	11		
	도지코인(DOGE)	21	8		
	솔라나(SOL)	15	2		
	에이다(ADA)	10	3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	6	2	4%	15
	바이낸스(USD)	2	1		
	서클(USDC)	2	1		

* 투자시작시점기준

수시/비정기 → 정기 투자로,
단기 → 중기 투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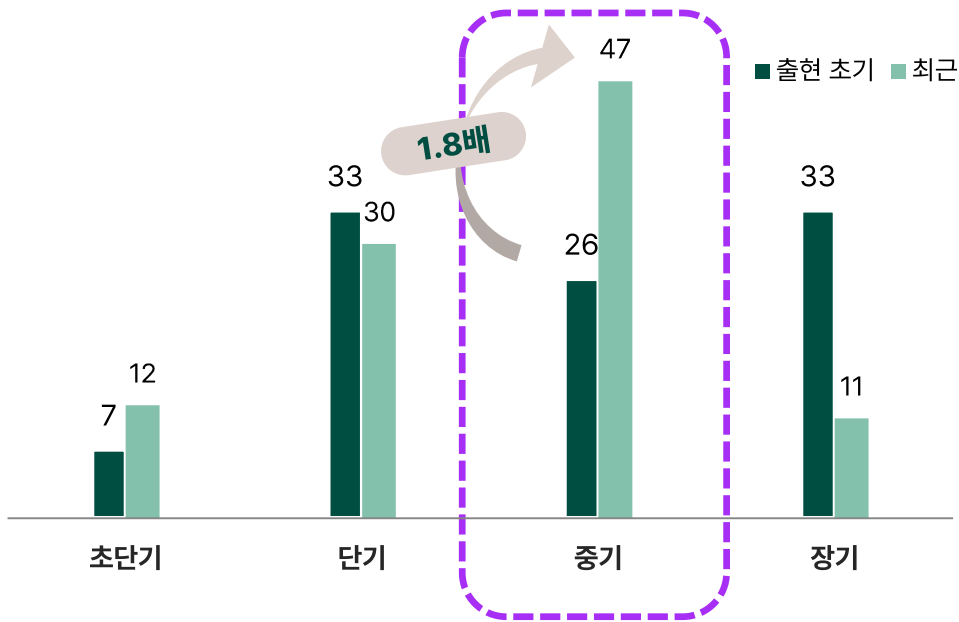
- (투자주기) 여윌돈이 생길때마다, 비정기적으로 투자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나, 과거대비 정기투자하는 비중이 3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20대는 정기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음
- (거래주기) 과거 대비 단기 거래가 줄고 좀 더 긴 관점(중기 26%→47%)에서 매매하는 경향 증가

투자 방식



연령대		정기적으로 조금씩	수익률따라	비정기적으로
	20대	<u>30 (1순위)</u>	29	23
	30대	17	<u>39(1순위)</u>	30
	40대	20	30	<u>32(1순위)</u>
	50대	24	24	<u>28(1순위)</u>

매수/매도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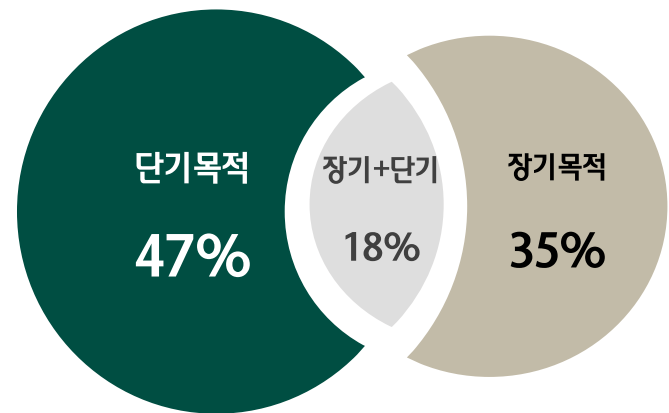
연령대		초단기 (하루이내)	단기 (며칠~몇주)	중기 (몇개월~1년 이내)	장기 (1년 이상 보유)
	20대	10	39	29	22
	30대	10	33	33	25
	40대	11	29	29	31
	50대	8	34	36	22

(n=487, 가상자산투자자, 단위: %)

노후준비 등 장기적 목적으로
코인 보유하는 경향 확대

- 코인의 특성상 아직까지 장기보다 단기간 내 변동성을 활용한 차익 기대 목적이 많으나
과거 대비 단기 투자나 유행에 편승하는 가벼운 투자 목적 감소
- 노후준비를 위해 코인을 보유하는 비중도 40%로 상당하며 노후가 가까운 50대 투자자는
타 연령 대비 장기 투자, 노후대비 목적 비중이 높음

코인 보유(활용) 목적



투자시작 시점		장기	단기	장+단기
	출현 초기	35	48	17
연령별	현재	34	45	21
	20대	37	44	19
	30대	30	59	11
	40대	31	44	25
	50대	41	42	17

Check point!

- ✓ 과거대비 단기 투자자 비중 감소, 유행/재미 추구 비중 감소
→ 투기에서 투자로 인식 변화
- ✓ 20대는 1/3이상이 유행이나 재미추구 목적으로 가볍게 투자하는 반면, 50대는 절반 이상이 노후준비를 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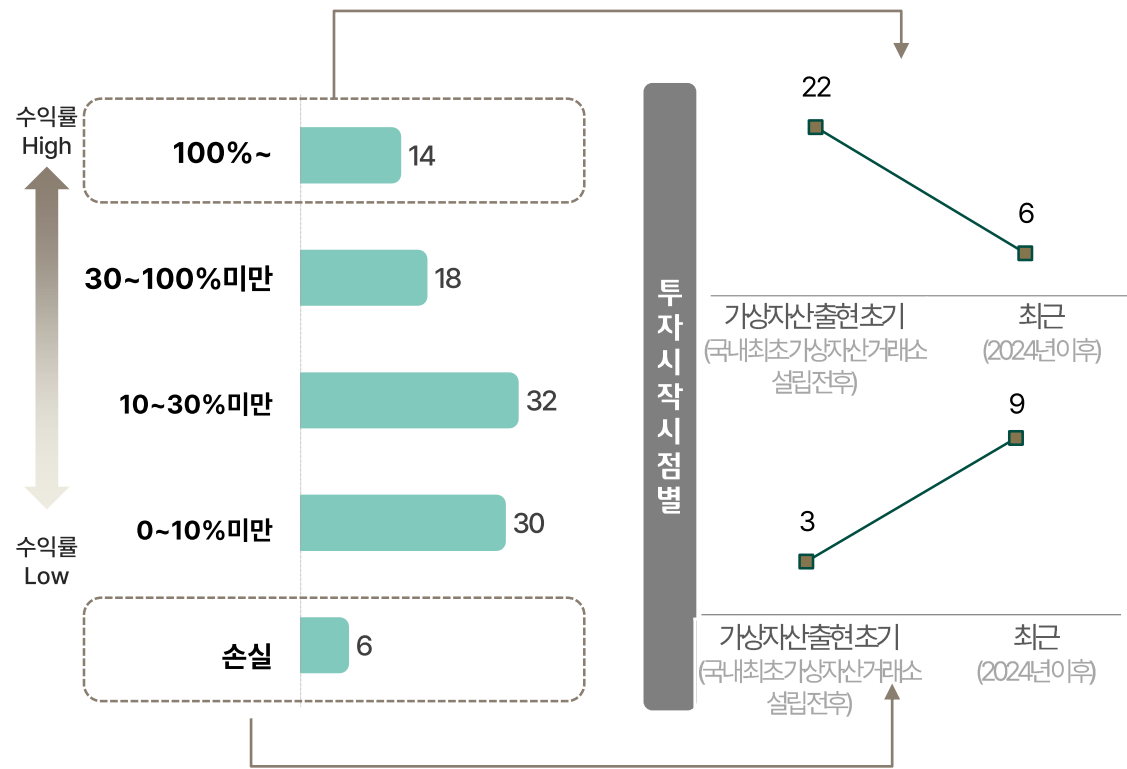
	전체	투자시작 시점별		연령별			
		출현 초기	최근	20대	30대	40대	50대
투자(돈굴리기)	79	78	69	82	81	78	78
노후준비	40	44	35	38	31	39	53
유행/재미	24	28	16	33	28	25	14
지출(생활비) 총당	22	19	23	24	22	21	23

(n=487, 가상자산투자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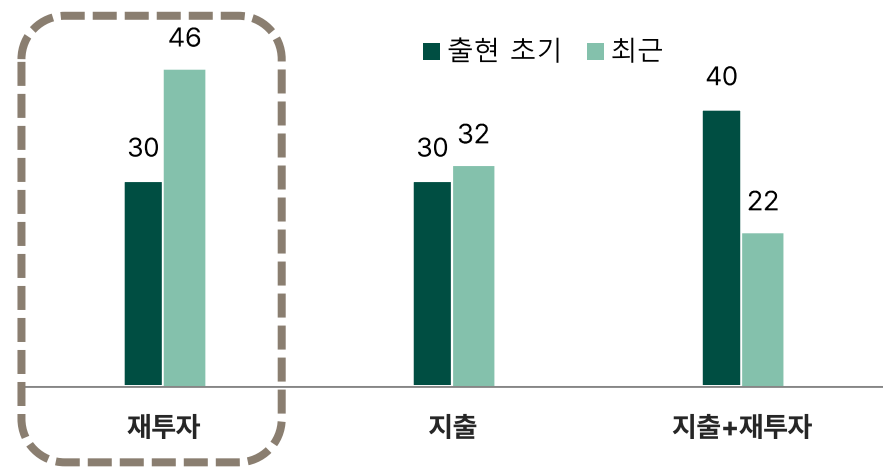
가상자산 투자 수익금을
재투자하는 비율 크게 증가

- 설문 시점 기준 코인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는 거의 없으나
시점에 따라 수익 실현 여부의 응답 변동성이 큰 상황
- 과거에 비해 투자 수익금을 재투자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 특히 예적금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 묶거나
가상자산 외 투자상품을 선택하기 보다 가상자산에 재투자하는 비중 높음

코인투자 수익률(누적)



* 수익의 활용



재투자	
다른 가상자산에 재투자	28
다른 투자 상품에 투자	25
안전자산(예적금)	23
대출상환	12
은퇴자금	11
주택구입자금	11

지출	
생활비	38
소비지출	24
유흥/여행자금	16
취미/기호품 구입	12

(n=487, 가상자산투자자, 단위: %)

가상자산 정보는
사적 채널(유튜브, 지인)을 통해 확인

- 가상자산 정보는 평균 2개 채널을 통해 확인하는 편, 과거보다 정보 획득 채널이 다양화
- 과거보다 주변 지인의 영향은 감소하고, 거래소 및 전문 분석사이트의 활용이 늘긴 했으나 여전히 유튜브, 주변 지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

가상자산 투자 시 정보 채널(중복)

정보 취득 채널 평균



과거 투자 경험자 1.97개
→ 현재 투자자 2.23개

	전체	투자 경험		연령별				초기투자규모별		
		과거 (현재 중단)	현재 보유 중	20대	30대	40대	50대	100만원 미만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유튜브	41	35	43	48	40	38	42	43	41	37
주변 지인	40	44	39	40	44	37	41	41	39	46
뉴스/언론매체	28	23	29	27	24	35	25	31	25	34
포털사이트 검색	26	29	26	20	22	30	31	24	28	24
투자 관련 커뮤니티 / 카페	23	23	23	23	21	21	28	19	26	24
가상자산 거래소	22	15	24	14	17	25	28	17	24	26
가상자산 분석/정보 제공 플랫폼 (CPLabs, 코인힐스, 크립토크트, 코스콤 등)	17	10	19	16	16	18	17	14	16	29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X 등)	14	11	15	21	12	13	13	12	15	17

(n=616, 가상자산 투자 경험자, 단위: %)

수익 등락에 따른 관리 어려움은
감수, 투자 편의성 기대 증가

- 신종투자자산의 특성상 투자 시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는 것은 불가피
- 최근에는 가상자산 자체(수익 변동) 특성에 기인하는 내재적 요인보다 정보획득, 투자 편의성 (연계 은행 선택 등)처럼 거래 심화를 위한 외재적 요건에서의 어려움 토로 증가

Check point!

- ✓ 과거대비 변동성이나 시장 개념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는 투자자 비중은 감소
- ✓ 초기투자규모가 큰 경우 투자할 가상자산 선택과 관련 정보 획득에 더 큰 어려움 호소

가상자산 투자 시 애로사항(1+2+3순위)

		투자 시작시점			연령별				초기투자규모별		
		전체	출현초기	최근	20대	30대	40대	50대	100만원 미만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내재적	수익률 변동이 심해 관리가 어려운 점	48	48	39	35	55	53	45	48	51	39
	가상자산 투자 전략 정보 획득	38	34	31	32	40	34	42	33	39	46
외재적	투자할 가상자산 선택	37	35	41	35	33	38	42	39	34	44
	가상자산 시장/개념 이해	34	36	27	47	36	28	32	32	37	30
내재적	가상자산 투자방법 이해	20	17	20	20	26	17	15	20	22	9
	거래소 연계 은행 선택 불가	18	18	20	19	16	19	19	16	19	20
외재적	가상자산 거래소 정보 / 선택 가이드	17	17	15	17	12	18	21	16	16	22
	세금 및 관련 법안(규제) 우려 및 정보 업데이트	12	17	12	18	10	10	13	9	12	20

(n=487, 가상자산투자자, 단위: %)

Ⅲ 가상자산 거래 기관 이용 행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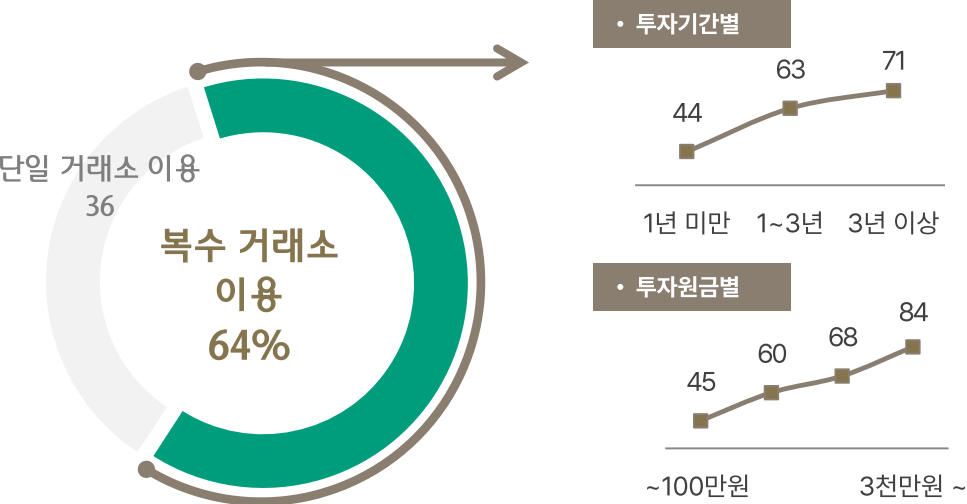
1.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현황
2.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은행 이용 현황



투자자 1인 평균
1.5개 거래소 이용

- 투자자의 64%가 복수의 거래소를 이용하며 투자기간 및 규모에 비례해 복수 거래율 증가
- 투자자 대부분이 국내거래소만 이용, 5%는 국내 거래소와 해외거래소를 함께 이용 중이며 20대의 해외거래소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음

가상자산 이용 거래소 수 : 투자자 1인 평균 1.5개의 거래소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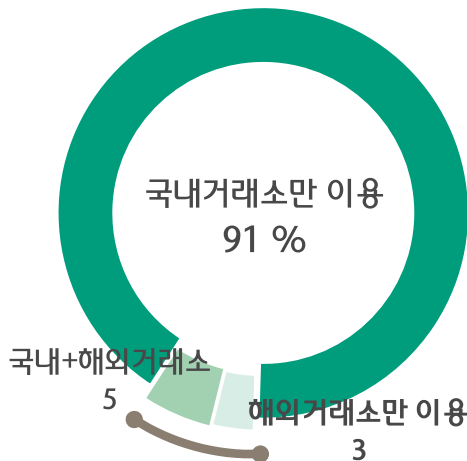


거래소 복수거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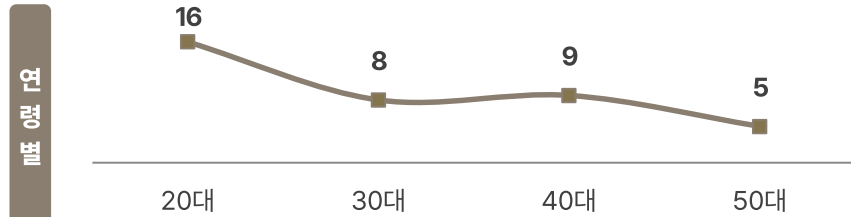
- 추천/이벤트 등에 따라 개설 (46%)
- 거래소마다 다른 종류의 코인 거래 (24%)
- 수익실현 거래소와 장기투자 거래소 구분 (22%)
- 현물, 선물 거래소 구분(7%)

(n=487, 가상자산투자자, 단위: %)

국내외 거래소 이용 현황



※ 해외거래소 이용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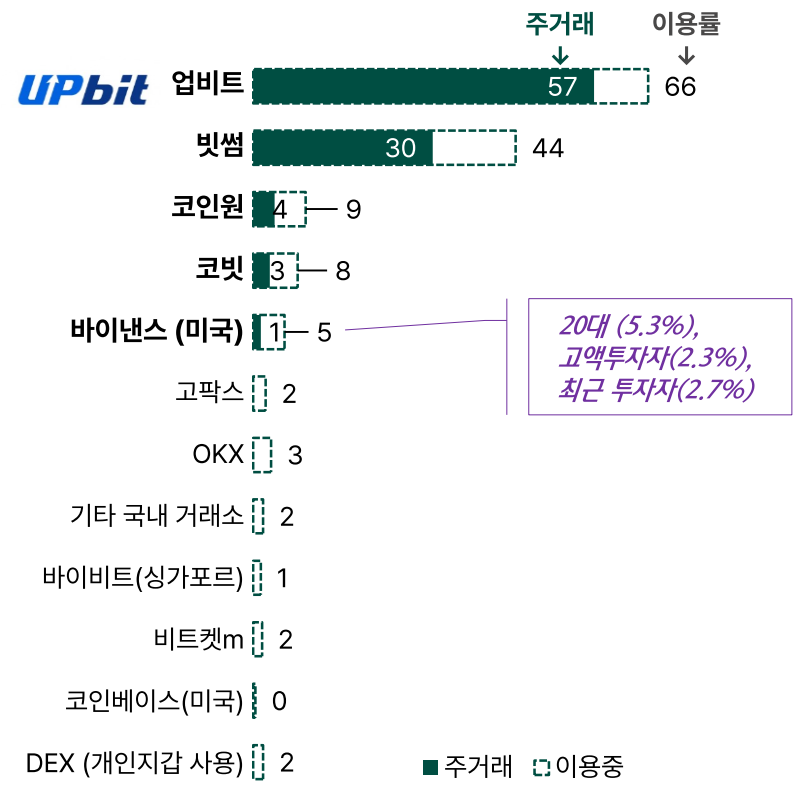


(n=483, 가상자산투자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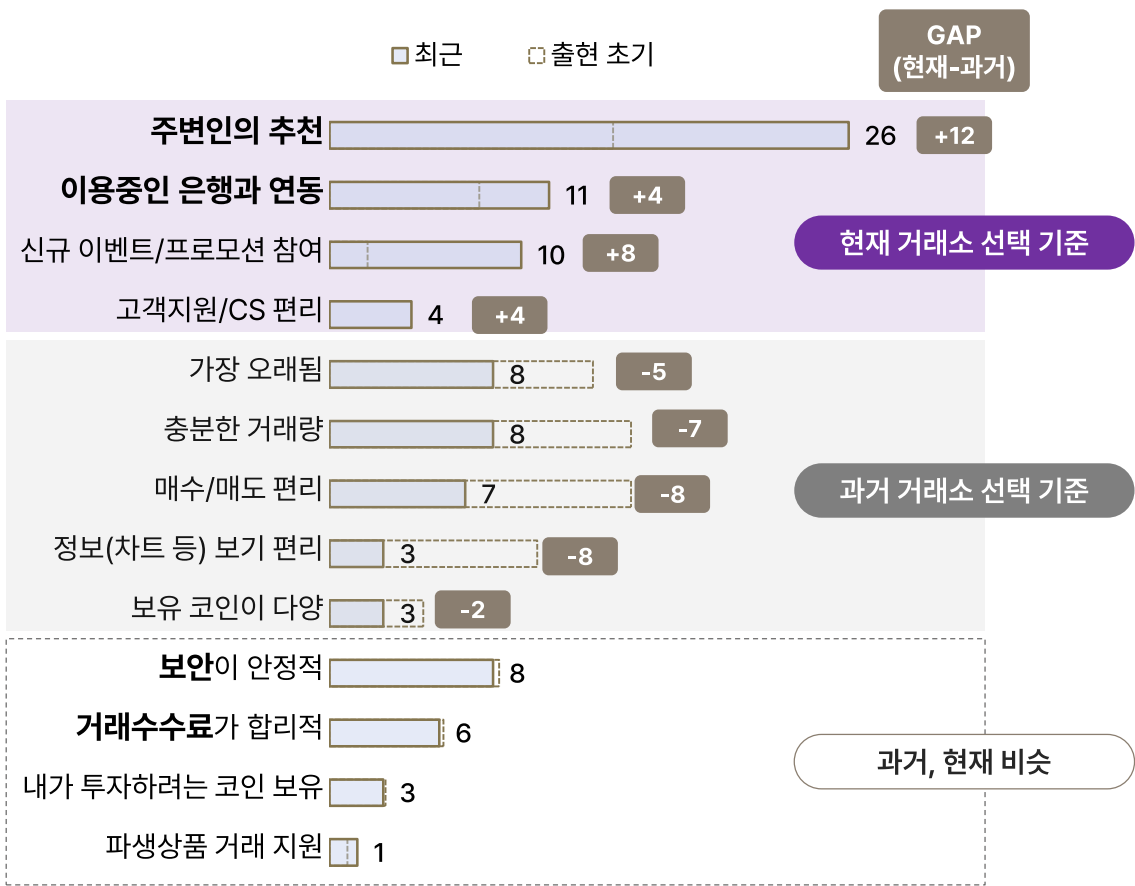
업비트에 이용 집중, 거래소 자체
특정보다 주변추천 및 연계 은행이
거래소 선택에 더 큰 영향

- 국내거래소 이용률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순이며, 타 거래소 대비 업비트 이용에 월등히 집중
- 거래소 선택 시 '주변 추천'이 결정적이며 '이용 중인 은행과 연계 거래'여부도 매우 중요한 영향 요인
- 거래소 선택 시 업력, UI/UX, 코인 거래 종류 등 거래소 자체 특성의 영향력은 감소한 반면, 주변 추천, 은행 연동처럼 브랜드 신뢰의 간접 영향 요인이 강조되는 추세

■ 이용중인 거래소 / 주거래 거래소(예치금액 최고)



■ 거래소 선택 이유(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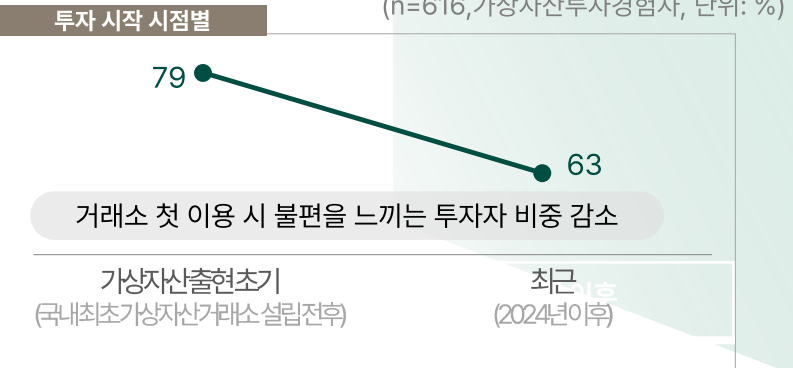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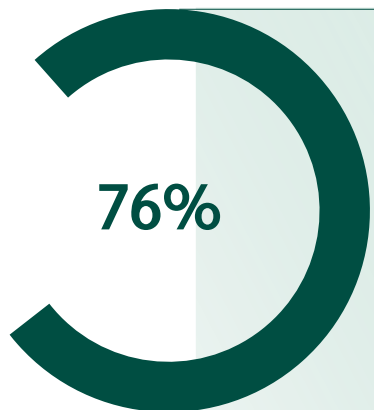


(n=487, 가상자산투자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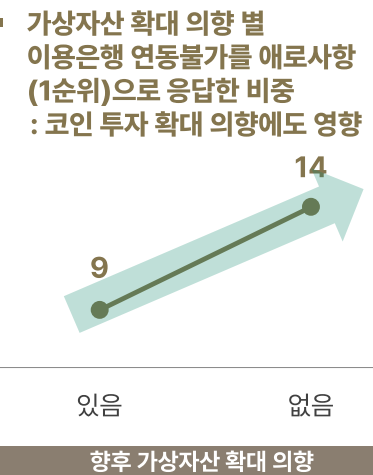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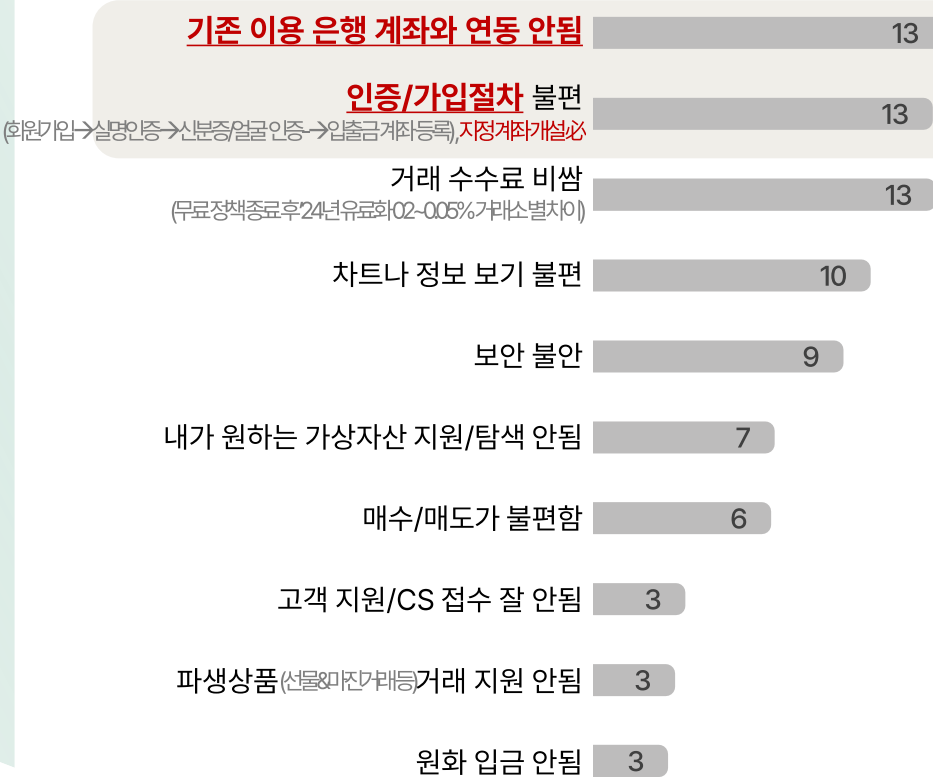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시
은행 연동/인증 절차의 불편

- 거래소 첫 이용 시 10명 중 8명은 불편을 경험하나 과거 대비 그 비중이 감소
-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연동 은행 선택 불가를 꼽았으며, 지정 계좌 연동 과정이 필요한 인증 절차의 불편함까지 더하면 1거래소 1은행 지정은 투자 시작의 큰 Barrier임을 확인
- 연동 은행 지정 불만은 투자 확대 의향이 낮을수록 더 높아져 투자 시작 후 거래 심화에도 영향 미침

가상자산 거래소 첫 이용 시 불편함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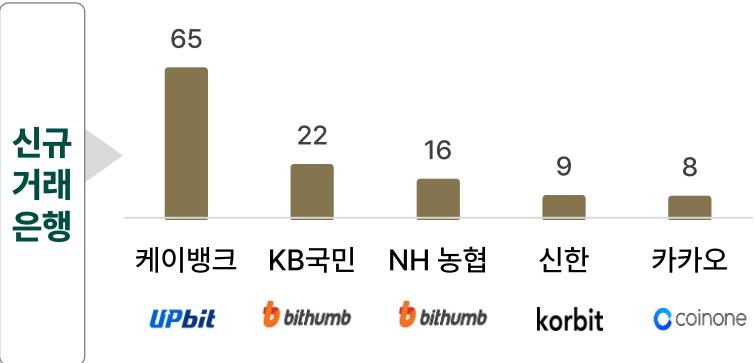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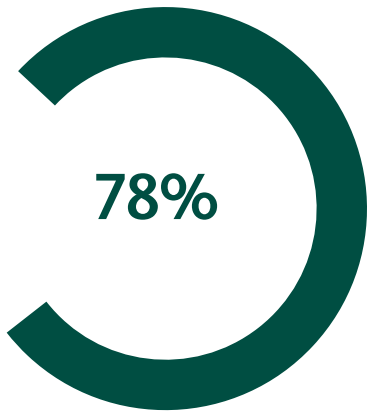
■ 애로사항 (1순위)



코인 거래소 가입을 위해
78%가 은행 신규거래
(∴은행 연동 절차가 거래소 시작의 불편 이유)

- 코인 투자자의 78%가 거래소 이용을 위해 신규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상황
→ 코인 거래로 인한 은행 신규 영향 큰 편
- 업비트와 연계한 케이뱅크의 유입이 특히 많고, **, ## 순으로 거래소 이용률을 반영
- 케이뱅크 신규유입의 절반은 2030, 은행**과 ##에 비교적 고자산가가 유입

거래소 이용을 위해 새로운 은행과 거래를 시작했다



(n=487, 가상자산투자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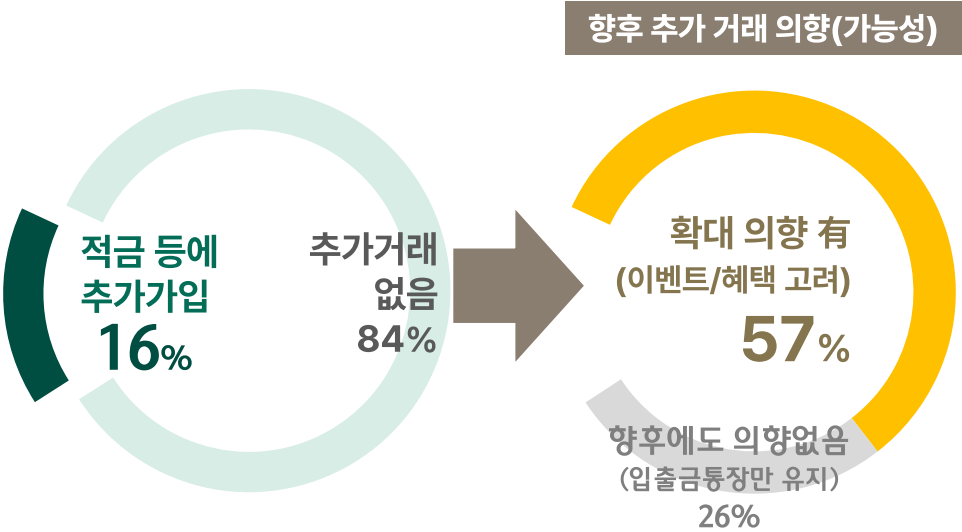
은행별 신규 유입 손님 특징

		은행 1	2	3	4
금융자산	1천만원 미만	14	15	15	17
	5천만원미만	37	37	22	30
	1억원 미만	23	24	29	17
	1억원 이상	26	23	35	37
연령	20대	15	17	18	17
	30대	34	21	18	27
	40대	30	27	38	30
	50대	23	26	26	27
직업	회사원	65	62	64	77
	전문직	9	15	13	13
	자영업	8	6	4	-
	주부	4	6	9	-
	대학생	7	5	7	7

코인 거래 위한 신규 은행에서
거래 확대 16%, 잠재 의향 57%

- 신규 거래 은행에서 입출금 계좌 외 추가상품에 가입한 경우는 16%에 불과하지만 57%가 거래확대의향(가능성)을 표현해 잠재 가능성 농후
- 신규입출금 통장 잔액은 45%가 100만 원 미만, 이미 거래를 확대한 경우 약 57%가 1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상 18%)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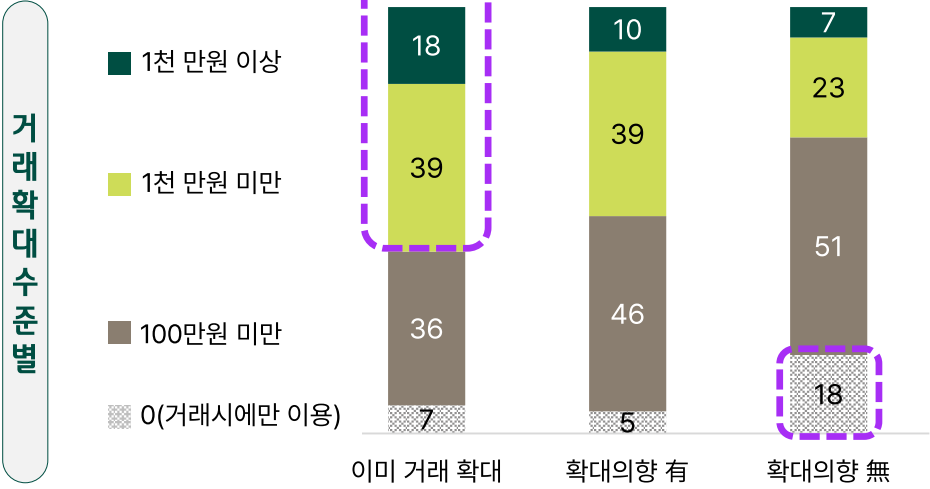
코인 거래소 연계 은행 신규 후 거래를 확장했다 -- 의향이 있다



신규 거래 은행		"이미 거래 확대"	"확대의향 有"	"확대의향 無"
	은행 1	15	56	30
	2	23	56	21
	3	16	60	24
	4	13	77	10

(n=371,은행 신규거래자, 단위: %)

입출금 통장 잔액



※ 은행별

	전체	은행 1	2	3	4
1천만원 이상	10	7	15	16	20
1천만원 미만	36	34	33	35	30
100만원 미만	45	48	44	42	50
0(거래시에만 사용)	9	11	8	7	-

1거래소 1은행 제약 완화 시
혜택보다 편의성 우선 고려

- 코인 거래소 거래를 위해 1개 은행 지정 제한이 해소될 경우 **혜택보다 편의성을 고려해** 주거래은행을 지정하겠다는 의향이 72%로 월등
- 신규 은행 선택요건으로는 예치자산에 대한 금리우대 혜택 선호가 높고, 코인 거래 수수료 할인, 코인 지급 이벤트 등을 기대

What if.... 1거래소 1은행 제도가 완화돼 은행을 자유롭게 연동할 수 있다면 어디를?



현재 주거래 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인 경우 신규은행 이용의향 높음
→ 더 유연하게 금융회사 이동

• 신규은행 선택을 위한 희망 혜택(1+2+3순위)



(n=700, 전체, 단위: %)

		주거래 이용	신규이용
주거래은행	시중은행 1	75	25
	2	78	22
	3	70	30
	4	76	24
	인터넷전문은행 1	66	34
	인터넷전문은행 2	62	38

Ⅳ 향후 가상자산 투자 계획

1. 2050대의 향후 가상자산 투자의향
2. 향후 투자의향 가상자산 종류
3. 향후 가상자산 투자 시 우려/기대 요인
4. 향후 가상자산 투자의향 개선 요건
5.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금융기관 거래 변화_은행/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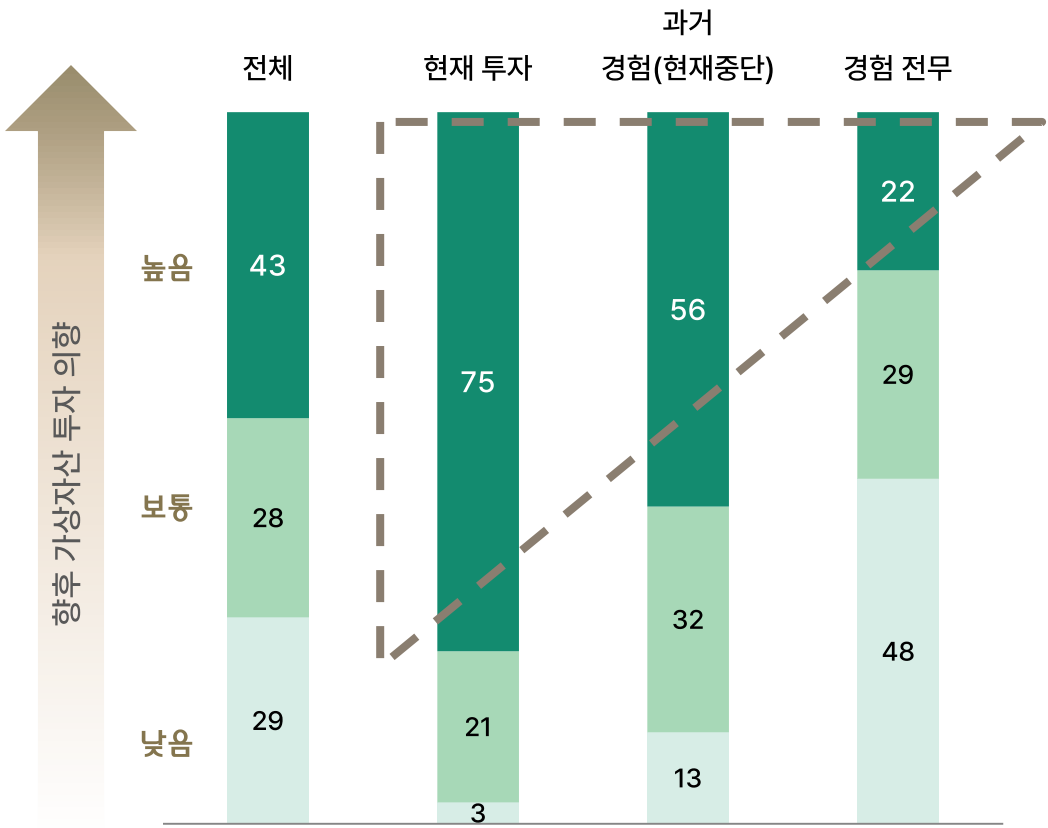


가상자산 투자 의향은 과거 수익과 무관하게 “경험”해 봤는지가 K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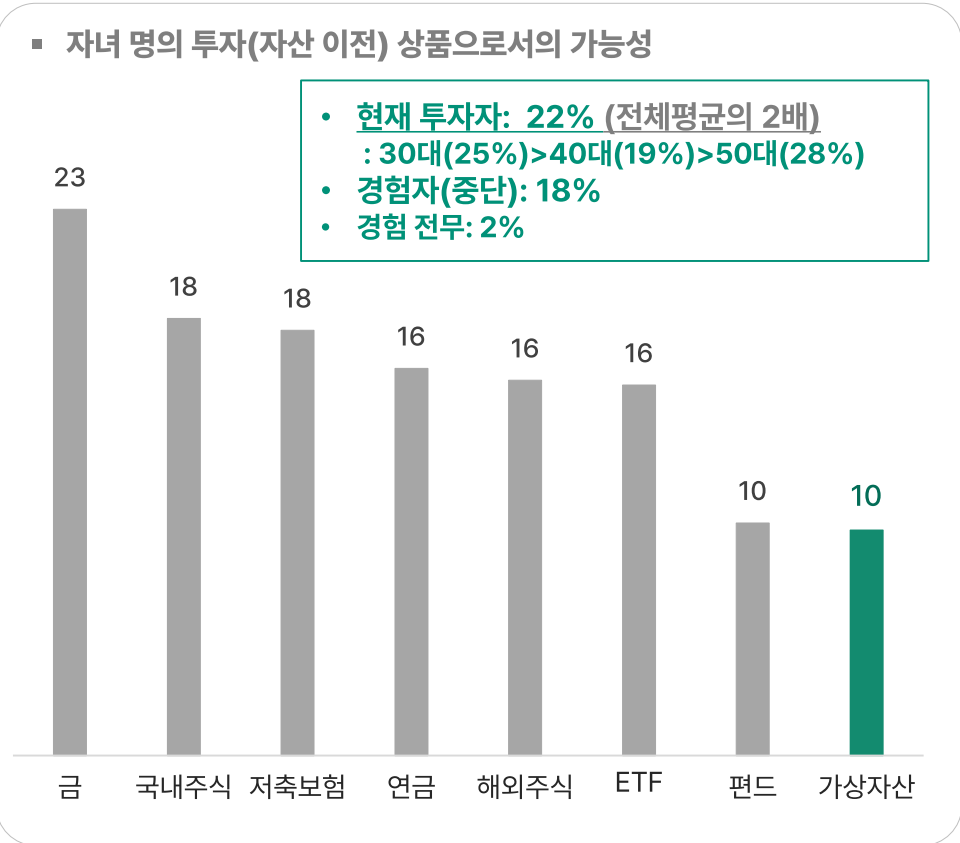
- 가상자산 투자의향은 성향과 유관하므로 “경험”이 좌우, 현재 투자자의 ¾이 투자 확대 의향, 과거 투자 경험이 있을때도 절반이상(56%)이 재개 의향 보이나 투자 경험이 전무할 때는 주저(의향 22%)
- 금융소비자의 약 10%는 자녀 명의 투자상품으로 가상자산을 고려해 장기, 펀드와 유사한 수준 : 현재 투자자(22%)와 과거 경험자(18%)는 자녀 명의 투자 의향이 전체보다 2배 가량 높은 편

향후 가상자산 투자 의향

※ 투자손실(코인기준) 여부도 거래 의향의 Barrier가 안됨 → 손실경험자의 60%가 투자의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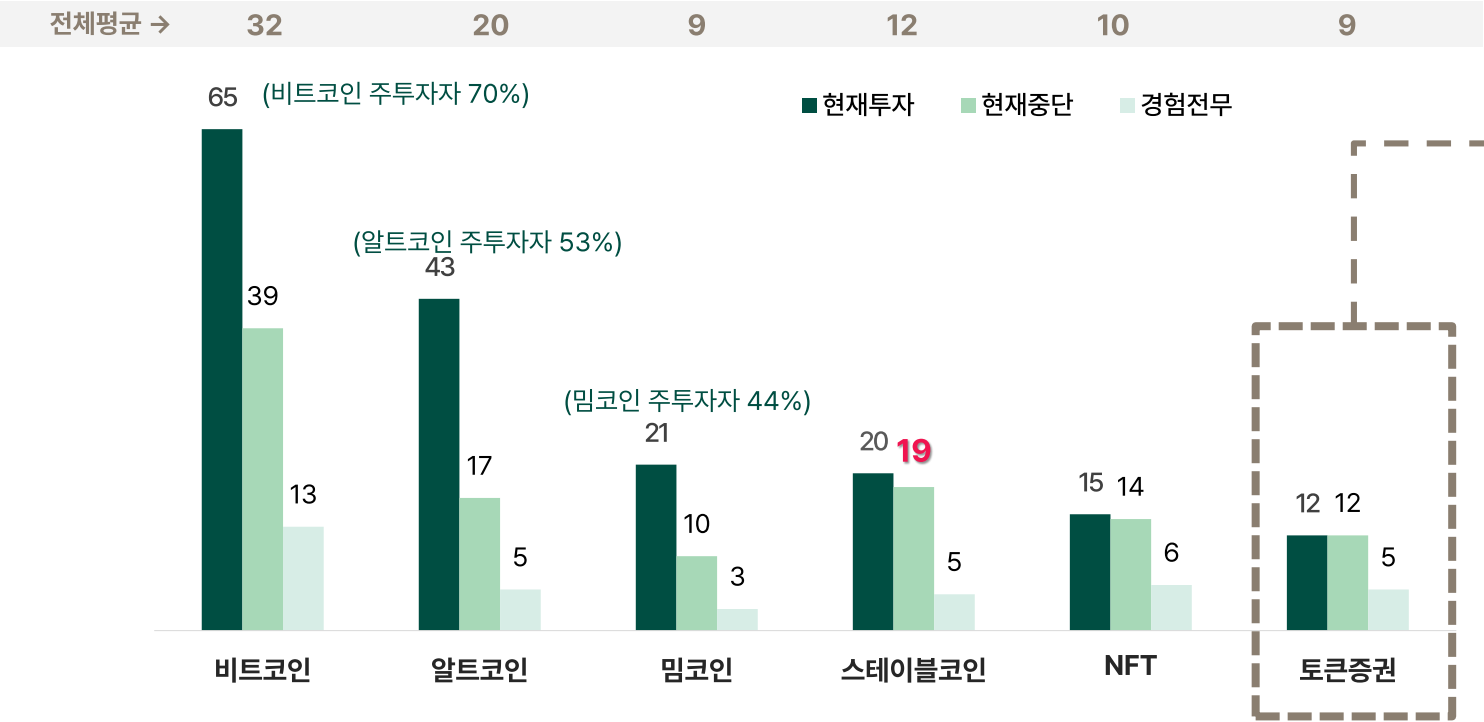
(n=700,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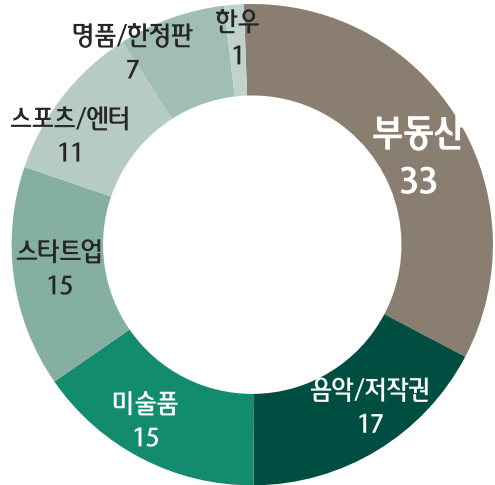
가상자산 투자 시 10명 중 9명은
비트코인 우선 고려

- 향후 가상자산 투자 시 **비트코인>알트코인** 매수 의향이 높는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관여자는 제도권 출시가 논의되며 안정성이 높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 높은 편
- 상대적으로 NFT나 토큰증권 등 코인 외 가상자산 투자방향은 저조하나 **현물 조각투자** 시 부동산 우선

투자의향 가상자산(의향 있음+매우있음)



조각투자 희망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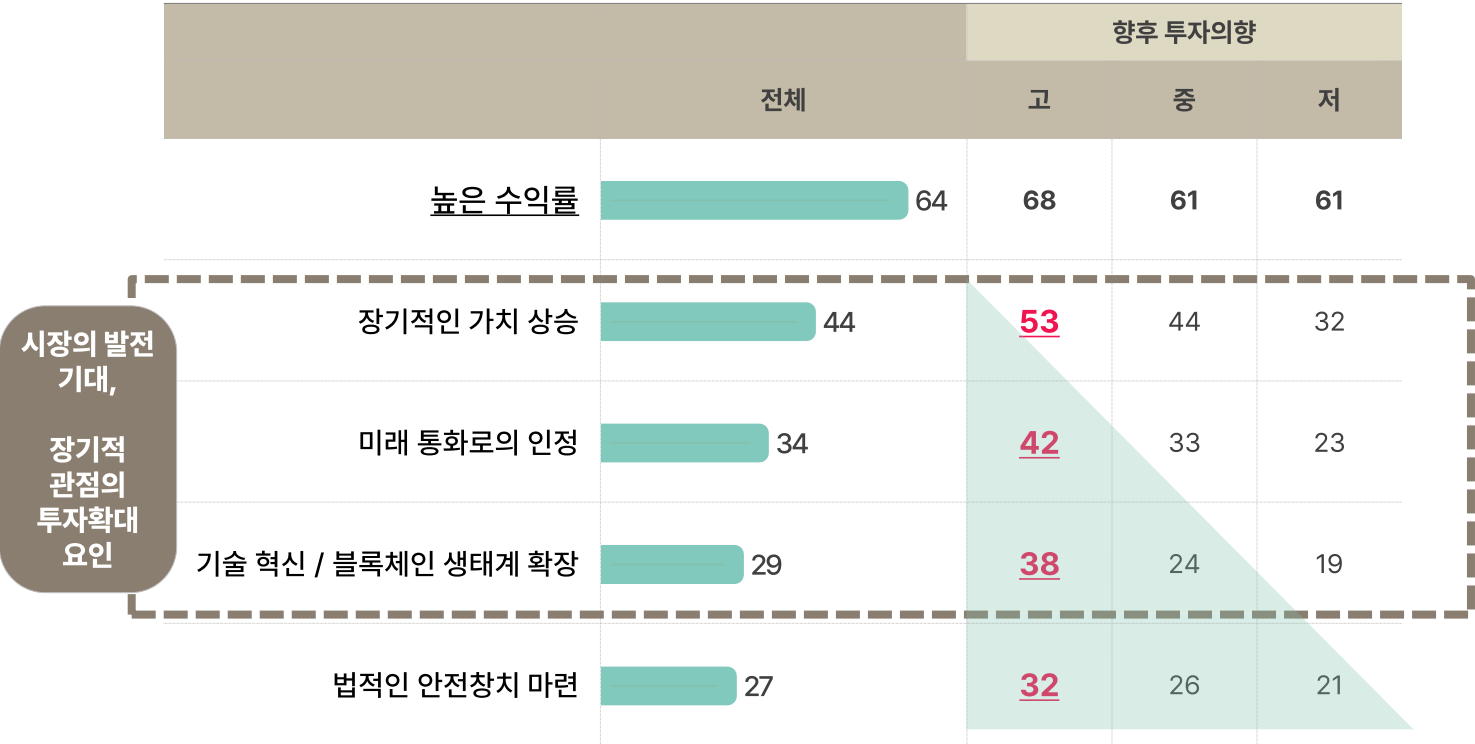
(n=700, 전체, 단위: %)

2050대의 향후 가상자산 투자 시 기대 요인

가상자산 투자 유발은 수익률 때문, 발전 가능성 기대도 커져

- 가상자산 투자의 핵심 이유는 높은 수익률에 대한 기대, 투자 의향이 낮더라도 수익률이 관심 유발
- 투자 의향이 높을수록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투자 확대 의향을 보이고, 기술혁신, 장기적 가치 상승의 기대는 최근 투자를 시작한 경우 더 높게 인식해 시장의 성숙을 반영
- 향후 투자 의향이 낮더라도 수익률에는 관심을 보이고, 법적 제도 마련 시 5명 중 1명은 투자 의향

가상자산 투자 시 기대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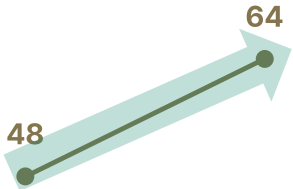


(n=700,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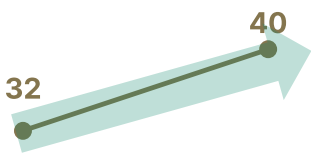
투기에서 투자로, 시장의 성숙을 반영 ②

: 과거 대비 현재 투자자가 장기적 가치 상승, 기술 혁신 기대로 인한 투자 의향 증가

“ 장기적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 ”



“ 기술혁신,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에 대한 기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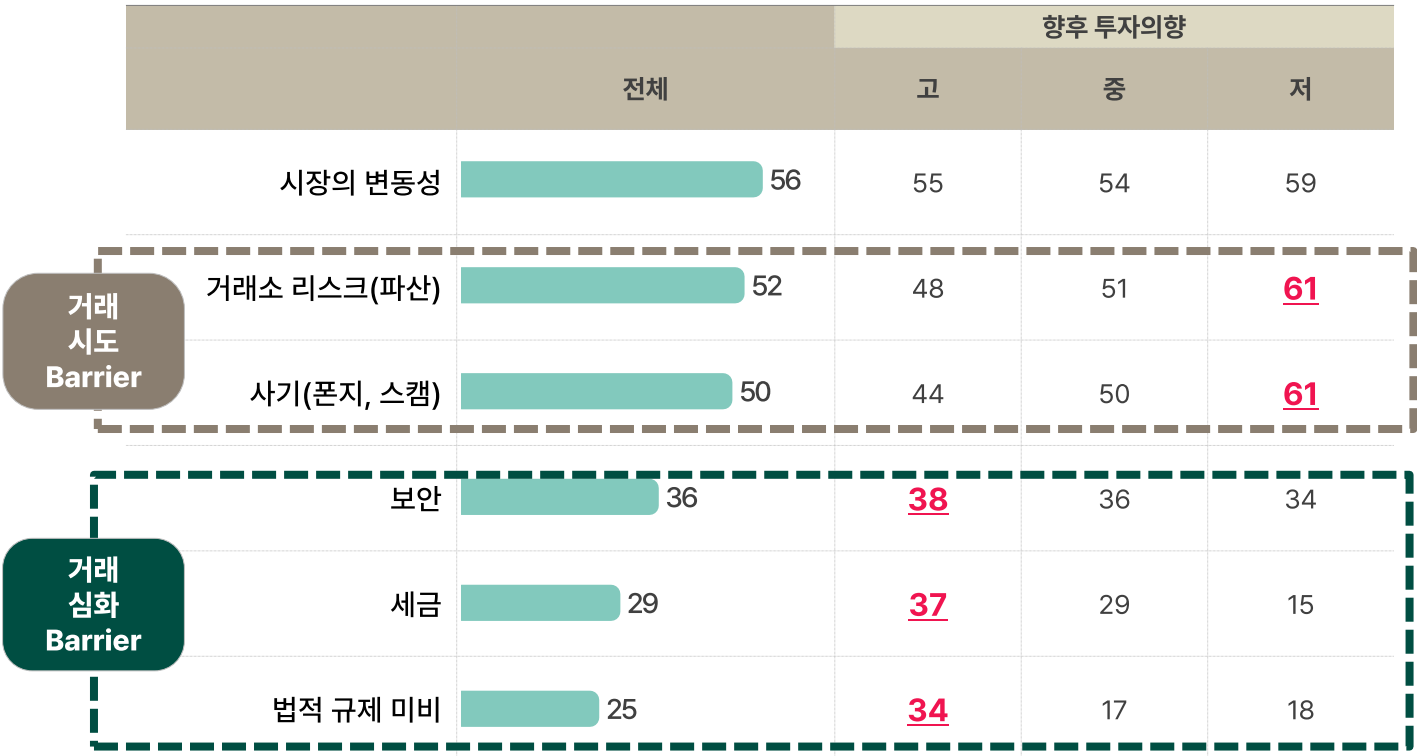
가상자산출현초기 (국내최초가상자산거래소설립전후) 최근 (2024년이후)

거래 시작 시점

거래소 불신+사기는 거래 시도
Barrier, → 거래 심화 시
보안+세금+법적 규제 우려

-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규제 미비에 따른 거래소의 불안정성은 거래를 저해하는 요인
- 비규제 시장의 특성상 막연한 불신(거래소 파산, 사기 등)이 거래 시도를 저해,
거래 의향이 높은 경우 세금 정책, 법 규제 미미를 우려하고, 최근 거래가 늘며 세금에 대한 우려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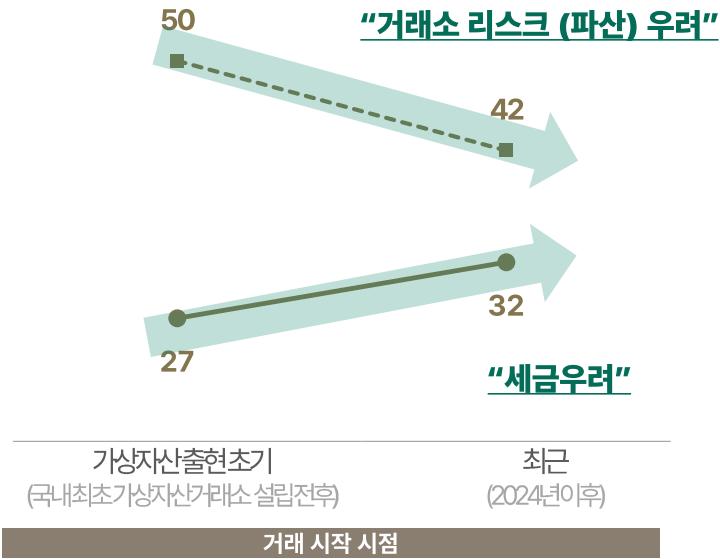
가상자산 투자 시 우려 요인



(n=700, 전체, 단위: %)

투기에서 투자로, 시장의 성숙을 반영 ①

: 거래 확대로 인한 세금 우려 증가,
심리적 불안 요인; 거래소 불신(파산) 우려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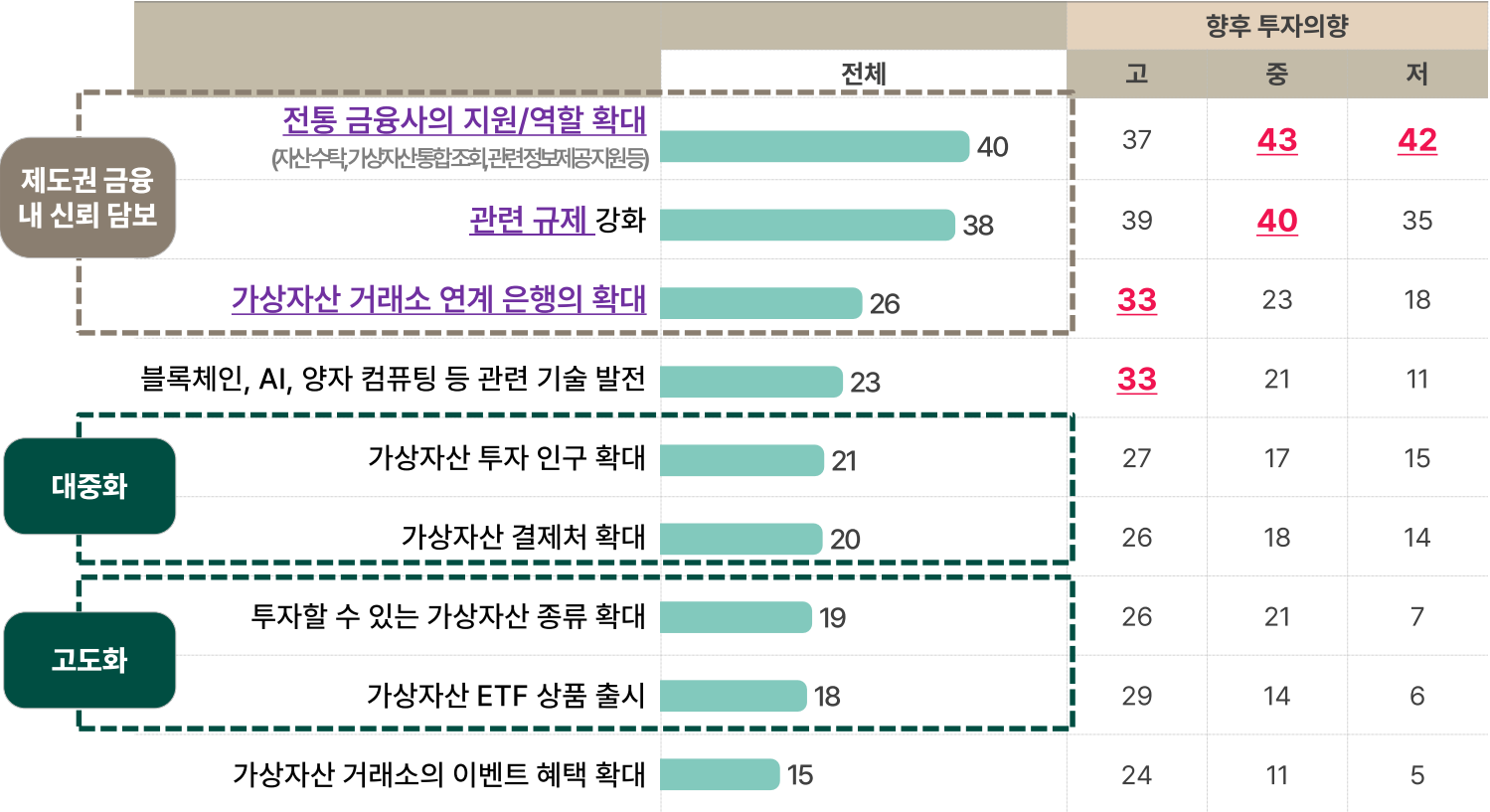


2050대의 향후 가상자산 투자방향 개선 요건

제도권 금융과 연계는
신뢰, 안전 및 편의성 제고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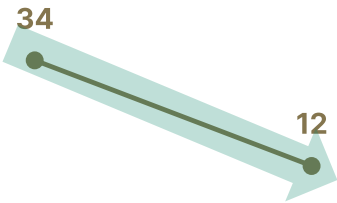
- 향후 예측가능한 투자 환경 변화 중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전통금융사의 지원/역할 확대며 거래경험이 없는 신규 투자자 유입에도 주요한 트리거
- 과거에는 가상자산 투자인구의 확대(대중화)가 곧 신뢰였다면, 이제는 제도권 인정이 중요
- 현재투자자의 투자 확대 의향이 높으며, 투자방향의 높을수록 상품 출시 등 시장 고도화가 중요 포인트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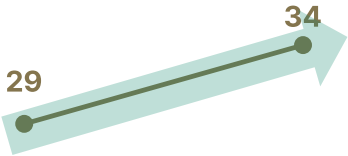
(n=700, 전체, 단위: %)

“ 가상자산 투자인구가 증가하면 투자를
더 긍정적으로 고려 ”



* 제시된 보기중
최저응답률 항목

“ 가상자산 ETF 출시가 긍정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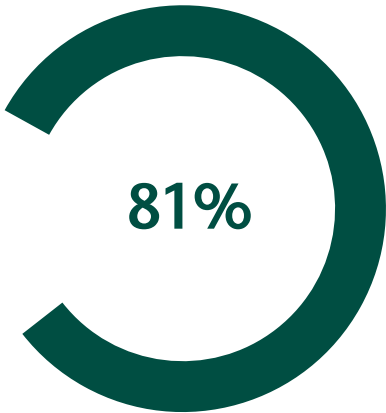
가상자산출현초기
(국내최초가상자산거래소설립전후) 최근
(2024년이후)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금융기관 거래 변화(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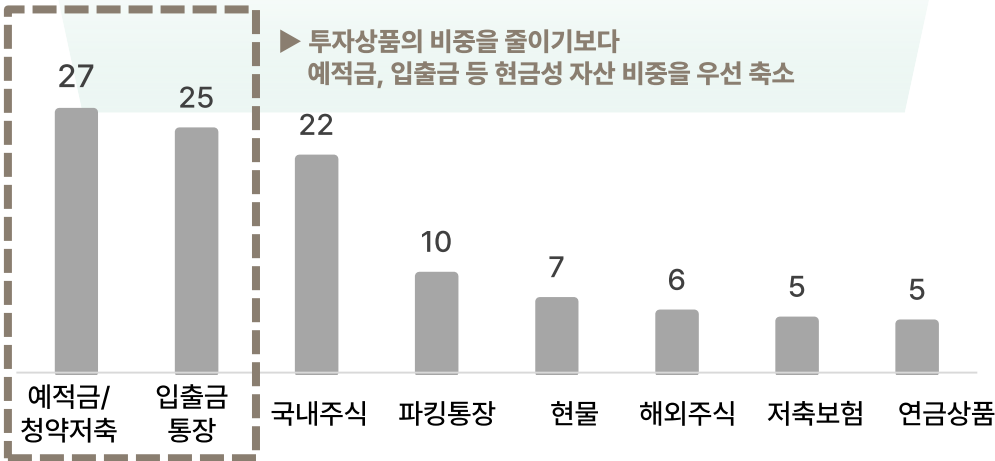
가상자산 투자 자원 마련은
예적금 등 현금성 자산 우선 활용

- 가상자산 투자를 늘리기 위해 **예적금과 입출금 통장의 예치 자산을 우선 활용할 의향**
:국내외주식 등 투자 상품 간 전환이 아니라 저축상품과 전환을 고려해 은행 잔고에 영향 미칠 가능성
- 가상자산 투자자는 주 자산 예치 기관이 증권사인 경향 높는데, 향후 증권사 집중 의향은 더욱 증가

가상자산 투자 확대를 위해
다른 상품 예치 자산을
전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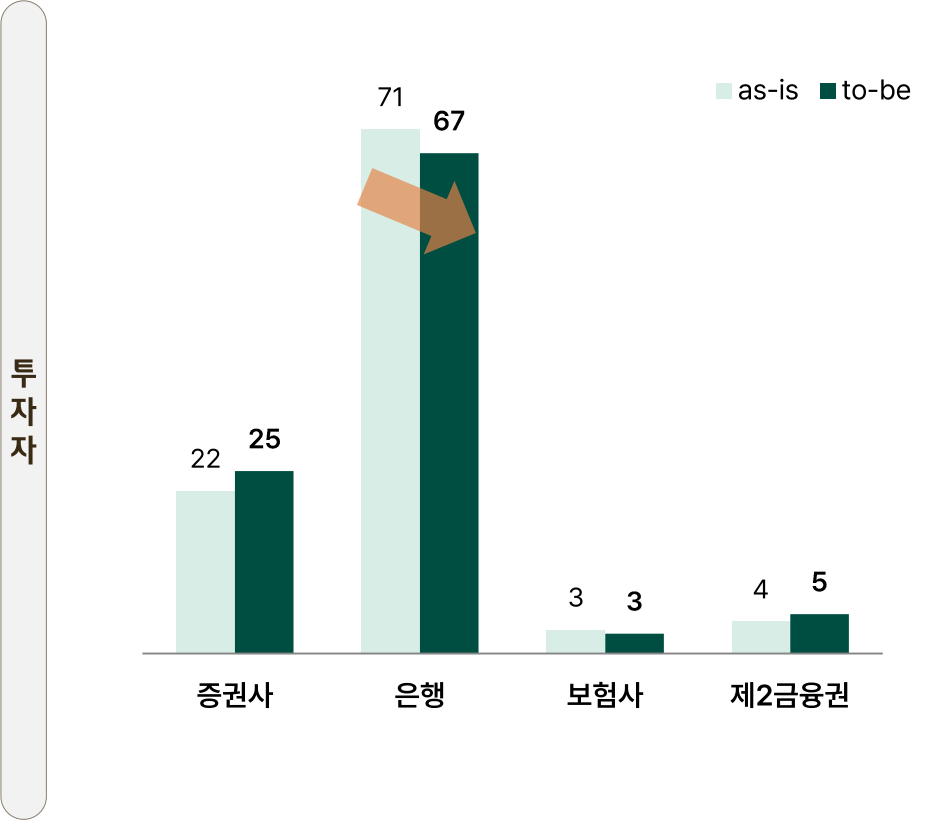


가상자산 투자 전환 예상 자산



(n=700,전체, 단위: %)

1순위 예치 금융기관 (금액기준)



(n=487,가상자산투자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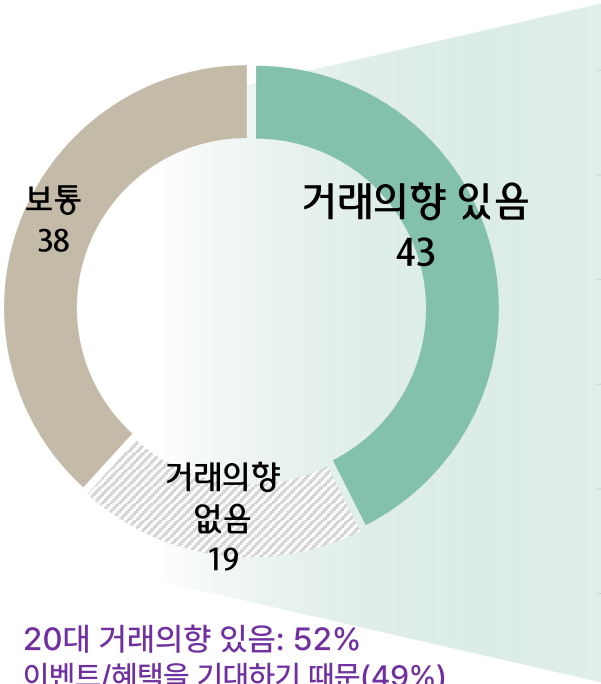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금융기관 거래 변화(거래소)

코인 거래소에서도 계좌이체
/주식 연계 가능하길 43%,
편하니까!

- 코인 거래소 이용자 중 43%는 거래소에서 계좌이체, 주식거래 등 금융거래를 해도 좋겠다고 응답, 거래 편의성, 수수료 혜택을 기대하기 때문
- 2030대 젊은층의 수용도가 더 높은 편인데, 이벤트 혜택에 대한 기대 때문

If so....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 외 금융거래 의향



- 20대 거래의향 있음: 52%
- 이벤트/혜택을 기대하기 때문(49%),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거래 저해의 주된 요인 (42%)

(n=487, 가상자산투자자, 단위: %)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 외 어떤 금융거래를?

4050 1순위	계좌이체	42
	국내주식 연계	40
2030 1순위	해외주식 연계	37
	은행 연계 상품 가입 (ex. 예/적금)	25
	결제(지불)	24
	금융자산 현황 일괄 조회/관리 (마이데이터서비스)	19
	일상과 관련되어 있는 편의 서비스 (ex. 공공 정보 확인 등)	15

If then....

왜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 외 금융거래를?

YES

(n=208, 거래의향 있음)

- 다양한 상품을 한 곳에서 거래 할 수 있어서 (53%)
- 수수료가 더 저렴할 것 같아서(39%)
- 이벤트/혜택이 좋을 것 같아서 (39%)
- 기존 금융사보다 이용이 더 편리할 것 같아서(29%)
- 가장 자주 이용하는 투자 채널이라서(23%)

NO

(n=277, 거래의향 없음+보통)

- 기존의 금융사보다 이용이 더 불편할 것 같아서(40%)
- 보안 우려(33%)
- 추가 거래 혜택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31%)
-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31%)
- 수수료가 더 비쌀 것 같아서(28%)
- 거래 가능 상품/서비스가 제한적일 것 같아서(26%)

감사합니다